

# 「欽英」에 나타난 通園 俞晚柱의 도서해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Bibliography of Tongwon Yu Man-ju

金 知 淵(Kim, Ji-Yeon)\*

## ◁ 목 차 ▷

- |                    |                           |
|--------------------|---------------------------|
| 1. 서 언             | 3.2 목록 구성요소의 반영과<br>해제 내용 |
| 2. 俞晚柱의 가계와 「欽英」   | 4. 洪奭周의 「洪氏讀書錄」과의<br>비교   |
| 2.1 俞晚柱의 가계        | 5. 결 언                    |
| 2.2 「欽英」의 체제와 구성   | <참고문헌>                    |
| 3. 「欽英」의 도서해제 분석   |                           |
| 3.1 「欽英」의 목록기입법 분석 |                           |

## < 초 록 >

본고는 경화세족 俞晚柱(1755~1788)의 일기 「欽英」(1775년 1월~1787년 12월)에 나와 있는 독서 기록을 도서해제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洪奭周(1774~1842)의 「洪氏讀書錄」과도 비교하여 유만주의 도서해제가 갖는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유만주의 독서기록을 도서해제로 보고 그 구성요소를 분석해보면 독서방법, 서명, 권·책수, 저작 시기, 저자명, 저작역할 표시, 해제 내용 또는 序·跋文을 인용하여 초록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상세한 경우의 구성요소이고, 대부분은 몇 가지 요소만 포함한 아주 간략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해제 내용에 있어서는 서적의 성립, 체제와 구성, 서문의 찬자, 장서인으로 나타나 이 분야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홍석주의 「홍씨독서록」과의 비교에서 유만주의 도서해제는 체계적으로 편찬하지 않은 태생적인 계로 여러모로 홍석주의 해제에 비해 체계와 내용에 있어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나 분류체계에 있어서 기존의 사부분류와 다른 독자적인 十部(經·史·子·集·書·畫·譜·類·志·說) 체계를 제안하고, 전통적인 서명주기입법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서발문의 인용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등 유만주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유만주의 도서해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조선후기에 현대서지학적인 요소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시켜주며, 유만주를 초기서지학자로서 평가하게 한다. 서지학사에서 개인이 편찬한 해제서는 「海東文獻總錄」 이후 홍석주의 홍씨독서록 로 이어지고 있는데, 유만주의 도서해제는 홍씨독서록 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개인이 작성한 해제형태의 기록이 존재하였다는데 의미를 가지며, 소략한 해제서의 계통을 보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要語: 通원, 유만주, 「홍영」, 「홍씨독서록」, 도서해제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전공 박사과정(knowlake@hanmail.net)

접수일: 2009년 9월 7일 최초심사일: 2009년 9월 10일 심사완료일: 2009년 9월 17일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record of reading shown in *Heumyeong* (Jan. 1775 ~ Dec. 1787), a diary of Yu Man-ju(1755~1788), who was from a family holding hereditary government posts in the capital, and aimed to seek the meaning of the bibliography by Yu Man-ju in comparison also with *Mr. Hong's Reading List* by Hong Seok-ju(1774~1842).

When analyzing the components of the record of reading by Yu Man-ju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record as a bibliography, the record is discovered to be composed of reading methods, book titles, the number of volumes, authors' names, an indication of the role of the books, and details about bibliographical notes or the part abstracted by quoting the preface · epilogue. However, they are components when the record is detailed the most, and mostly, they are shown in a very simplified form, which includes several factors. The book comes in off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systems and configurations, the chanja preface, this collection is shown to have been a particular interest in the field is unknown.

In comparison with *Mr. Hong's Reading List* by Hong Seok-ju, the bibliography of Yu Man-ju is lacking some aspects in terms of its system and contents relative to the bibliographical notes of Hong Seok-ju because it was not systematically compiled and had limitations at conception. However, regarding the classification system, the bibliography ha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Yu Man-ju in that it proposed an original set of 10 parts(Gyeong · Sa · Ja · Jib · Seo · Hwa · Bo · Ryu · Ji · Seol) in a system,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4-part classification, and contained a factor, namely, the quotation of a preface while using the traditional main book name entry rules.

The bibliography of Yu Man-ju is neither systematic nor professional, but it may be evaluated to gain an outcome of its own. Such a performance confirms that contemporary bibliographical factors were already perceived during the later Joseon period, and this allows Yu Man-ju to be considered as an early bibliographer. In bibliographical history, bibliographical books compiled by an individual have led to *Mr. Hong's Reading List* by Hong Seok-ju after the *Haedongmongnokchongnon The Introduction to the Haedong List*), and the bibliography of Yu Man-ju is meaningful as this record existed in the form of a bibliographical notes prepared by an individual even in a slightly previous period to *Mr. Hong's Reading List*. Thus, the bibliography is anticipated to be utilized as data that will make up for the lineage of rough bibliographical books.

Key words: Tongwon, Yu Man-ju, *Heumyeong*, *Mr. Hong's Reading List*, bibliography

## 1. 서 언

17세기 후반부터 서울은 이전 시기에 비해 정치·경제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京鄕간의 학문적, 문화적인 격차가 심화되었다. 이 시기 서울에서는 중국에서 수입된 서적이 활발히 유통되었는데, 중국 서적은 중국으로부터의 의례적인 하사와 조선 조정의 요청에 의한 하사, 그리고 사행을 통해 중국 현지에서 직접 구입하는 방식으로 수입되었다. 16세기 말·17세기 초반부터 민간 영역의 중국 서적 수입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18세기 전반에 들어서는 중국 서적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것은 조선 지식층의 서적에 대한 열망과 북경 서적시장에서 공급하는 서적량의 절대적인 증가에 기인한다. 중국은 乾隆(1735~1796) 연간부터 琉璃廠 서적시장이 번성하였고, 중국 관원인 序班이 서적중개인 역할을 하여 조선 사신들의 서적구입을 용이하게 하였다. 국내에서는 譯官과 書僮<sup>1)</sup>의 활동으로 서적의 유통이 이전 시기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인 혜택은 서울에 世居하는 양반가문, 즉 경화세족에 의해 거의 독점되었다. 이는 서적의 구입과 소장예 막대한 자금과 문화적인 수용력, 가문의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청나라로부터 대량의 서적을 수입하여 장서가가 되었고, 서화골동에 대한 취미, 박학에 대한 경도의 경향을 보임으로써 향촌의 양반과는 차별화된 문화를 형성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이들은 인맥과 학맥으로 연결되어 학문과 문학의 커다란 범주를 형성하였다.<sup>2)</sup>

이러한 변화는 서지학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는데, 이 시기 대표적인 서지학적 성과로는 淵泉 洪奭周(1774~1842)의 「洪氏讀書錄」과 「四部誦惟」가 있다.<sup>3)</sup> 연천보다 앞선 시기에 通園 俞晩柱(1755~1788)는 「欽英」<sup>4)</sup>이라는 일기

1) 書僮[서패]는 서적중개상을 뜻하는데, 冊僮[책패], 책 거간꾼 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한 명칭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현재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書僮’라는 명칭을 쓰기로 한다.

2) 강명관, “조선후기 서적의 수입·유통과 장서가의 출현,” 「조선후기 문학 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 1999), 254.;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사사연구」 (소명출판, 1999), 24.

를 남겼다. 『欽英』에는 광범위한 독서 생활 즉, 求書와 藏書관련 기록, 서적의 내용, 서적에 대한 평가, 저술관련 기록, 당시 유통되던 서적에 대한 정보 등 서지학적으로 흥미로운 기록이 많다. 이러한 자료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欽英』에 대한 서지학적인 접근은 거의 없었다.<sup>5)</sup> 오히려 한문학계에서 명·청시대 저작의 열독이라는 측면에서 일부 조명되었을 뿐이다.<sup>6)</sup>

『欽英』은 그 내용의 반 이상이 독서한 내용으로 그 기록만 모은다면 ‘유만주의 독서록’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기록은 다른 일기상에서 보이는 독서기록과 달리 현대적인 의미의 해제와 그 성격이 비슷하여 더욱 주목된다. 또한 이것은 이 시기 다른 지식인들이 자신이 읽은 서적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본고는 이러한 기록을 유만주의 도서해제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분석하여 유만주의 도서해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가치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欽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 보고나서 유만주의 도서해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분석해 보겠다. 또 이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던 홍석주의 독서록인 『洪氏讀書錄』과의 비교를 통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해내고, 이를 통해 『欽英』 내 독서기록이 가지는 도서해제로서의 가치와 서지학자로서의 유만주를 조명하고자 한다.

3) 이에 대한 연구는 리상용의 「원천 홍석주의 서지학」과 「역주 홍씨독서록」이 있다.

4) 본고는 규장각영인본 『欽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유만주, 『欽英』, <규장각 자료총서 문학편>, 서울대학교규장각, 1997). 이후로는 이 영인본의 권수와 페이지로 기사의 출처를 나타내도록 한다. 예를 들어(1775.1.1 / 1-7)은 1775년 1월 1일의 일기이며, 영인본 『欽英』의 1~6권 가운데 1권 7쪽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 방식은 김하라의 “일기문학으로서의 『欽英』연구”에서 차용하였다.

5) 서지학에서 『欽英』에 대해 접근한 연구 성과는 본 연구자의 석사논문 정도가 있다. 김지연, “『欽英』에 나타난 俞晚柱의 독서생활과 서지학적 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8).

6) 강명관, “한 지식인의 독서 체험과 조선후기 문학 - 『欽英』에 대하여-” 『대동한문학』, 13(2000).

김영진, “18세기 말 서울의 명·청서적 유통 실태- 『欽英』을 중심으로-” 17·18세기 동아시아의 독서문화와 문화변동, 2004.

## 2. 俞晚柱의 가계와 「欽英」

### 2.1 俞晚柱의 가계

「欽英」은 유만주가 영조 51년(1775)부터 정조 11년(1787)년까지 13년 동안 쓴 일기로, 필사본 24책이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유만주의 字는 伯翠, 號는 通園, 欽古堂, 欽英外史이다. 유만주의 가계는 인왕산 玉流洞<sup>7)</sup>에 세거하던, 조선후기 대표적인 별열가문<sup>8)</sup> 중의 하나인 杞溪俞氏 가문이었다. 유만주의 아버지는 당시 명망 있는 문장가였던 俞漢騫(1732~1811)이고, 어머니는 順興安氏이다. 유만주는 長子로 태어났으나<sup>9)</sup> 유한준의 형 漢邴이 27세에 후사 없이 요절하자 그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유만주의 5대조 俞樾(1599~1655)은 月沙 李廷龜의 문인으로 척화론을 주장하여 유배와 복직을 거듭하였고, 고조 俞命賚(1652~1712)는 尤庵 宋時烈的 문인으로 송시열이 賜死되자 평생 은거하며 벼슬을 하지 않았다. 증조 俞廣基(1674~1757)는 영조 때 知中樞府事를 지내고 조부 俞彥鑑은 宣陵直長을 지냈다.

부친인 유한준은 蔭仕로 東陵參奉, 軍威縣監, 淸州牧使 등의 외직을 거치고, 말년에 내직으로 刑曹參議를 지냈다. 유한준은 金履坤(1712~1774)에게 詩를 배우고 南有容(1698~1773)에게 文을 배웠는데, 특히 남유용에게 문학적인 영향

7) 玉流洞: 인왕산 아래에 위치하며, 지금의 종로구 옥인동은 곧 옛날의 옥류동과 인왕동을 합한 동명이다(서울600년사 홈페이지 참조). 유한준, 「著菴集」 권14(여강출판사, 1987), 「南伯宗六十一歲壽序」에서도, “始余家居漢師之北玉流洞 漢師之北 士大夫多世居者 惟靑楓之金氏·紫霞之南氏·玉流之俞氏爲最久 故三氏之人 自先世以來 世修昭穆 相好也”라고 하여 이곳이 기계유씨의 세거지임을 알 수 있다.

8) 별열로 분류되기 위한 최소관인 배출규모는 3세대 이상 각 세대마다 당상관을 1인 이상 배출하는 것이었다. 또한 가문의 거주지가 별열형성의 한 요인이었다. 조선후기 관인 선발에 있어서 숙종대 경신대출척 이후는 완전히 居京者들에 의해 관직이 독점되었다. 따라서 별열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거주지가 서울인 경화별열이어야만 했다(차장섭, 「조선후기 별열연구」 (일조각, 1997), 269. 참조).

9) 유한준에게는 유만주 외에 晷柱(1759~1764)라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친연두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 유만주가 유일한 혈육이 되었다.

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0)</sup> 이처럼 통원의 직계는 文名은 있었으나 그리 현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가문에서는 俞拓基(1691~1767), 俞最基(1689~1768), 俞彥鎬(1730~1796), 俞漢蕭(1718~1769) 등 고관이 배출되어 명문으로서의 위치는 유지할 수 있었다.

유만주의 집안 사람들 중 유만주와 교류가 잦았던 인물들은 族祖 俞彥鎬,<sup>11)</sup> 5촌 당숙 俞漢芝(1760~1834),<sup>12)</sup> 從伯 俞駿柱(1746~1793),<sup>13)</sup> 內兄 金履中(1736~1787)<sup>14)</sup> 등이었다.

유만주는 비슷한 연배의 노론계 자제들과 모임을 가지고 학문적인 교류를 하기도 했는데, 「欽英」에서는 모임의 구성원끼리 ‘我輩’라고 부르며 남다른 유대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의 교류는 권상신의 문집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sup>15)</sup> 유만주가 지칭한 ‘我輩’에 속하는 사람에는 任魯,<sup>16)</sup> 任履周,<sup>17)</sup> 權常慎,<sup>18)</sup> 沈允之,<sup>19)</sup> 金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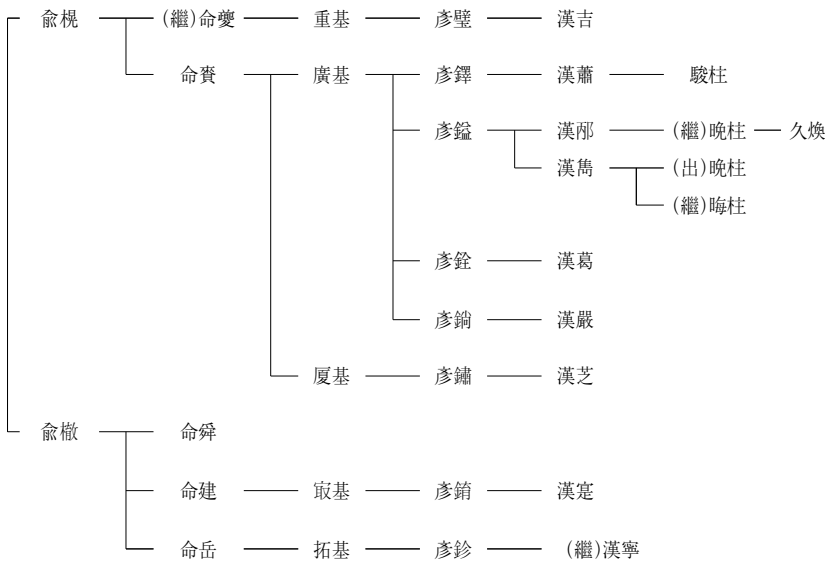
---

10) 김건우, “저암 유한준의 문학론과 그 실천 양상,”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7).  
 11) 俞彥鎬(1730~1796): 자는 士京. 호는 則止軒, 시호는 忠文이다. 정조의 총애를 받았으며, 「名義錄」 편찬을 담당하였다. 「欽英」에 나오는 蘭洞의 族祖가 유언호로 추정되며, 「通園稿」의 서문을 쓰기도 했다.  
 12) 俞漢芝(1760~1834): 자는 德輝, 호는 綺園이다. 김홍도·이인문 등 여러 화가들과 교류하며 이들의 작품에 제발문을 써주었는데, 특히 篆書와 隸書를 잘 써서 이름이 높았다. 「欽英」의 전서로 된 표제도 그가 쓴 것이다(황정연, 앞의 논문, 320. 참조).  
 13) 俞駿柱(1746~1793): 「欽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 중 하나로 水西 從伯이라 칭한 것으로 보아 저자의 사촌 만형임을 짐작할 수 있다. 유준주의 字는 聖大 이고 金正禧의 外祖父가 된다.  
 14) 金履中(1736~1793): 본관은 安東, 자는 時可로 「通園稿」 권6에 유만주가 그를 위해 지은 祭文 「祭內兄金公履中文」이 실려 있다. 그 제문에 의하면 그가 죽은 해는 1787년으로 되어 있어 당초 알려진 1793년과는 차이를 보인다.  
 15) 權常慎, 『西漁遺稿』, 「南阜春約」, “甲辰三月庚戌 與金叔道(金相任) 任彥道(任履周) 會做于沈士執(沈允之)家 不同做而往來者 俞伯翠(俞晚柱)·金季容(金相休)·李時中(미상)·李士仁(미상)是已 士執家在南 而園又高 曰南阜 攻令之業乃托 而會友者 其實謀多在 遊此南阜 約之所以作也 於是 各集琴書投壺之具 而約之云云…各抽一冊 或經或史 看到好處 必輪示共讀 賞得古人神情 暢得自己文思”(배기표, 앞의 논문, 12. 재인용).  
 16) 任魯(1755~1828): 본관은 豐川. 자는 得汝, 호는 穎西居士로 유만주의 이종사촌이다. 유한준의 부탁으로 유만주가 남긴 일기와 유고를 정리하였다. 「欽英」과 「通園稿」는 모두 그의 손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통원고」의 서문에서 그와 유만주의 관계를 司馬光과 范鎮에 비유하며 성은 같지 않지만 형제라고 할 수 있으며, 讀書, 文章, 言議, 趣向이 모두 같다고 하였다. 문집 「穎西遺稿」와 일기 「三省日錄」가 있다고 하나 전해지지 않는다.

休,<sup>20</sup> 吳熙常,<sup>21</sup> 吳淵常<sup>22</sup> 등이 있다. 또 아버지 유한준과 교유하였던 朴趾源,<sup>23</sup> 朴胤源,<sup>24</sup> 金光國,<sup>25</sup> 李安中<sup>26</sup>과도 자연스럽게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17) 任履周(1761~1808): 본관은 豊川, 자는 彦道, 부친은 任邁이다. 任墜의 종손으로 沈魯崇·權常愼 등과 친분이 두터웠다.
- 18) 權常愼(1759~1824): 본관은 安東, 자는 綱好, 호는 日紅堂 또는 西漁, 시호는 孝獻이다. 1786년(정조 10) 진사시에 장원을 한 뒤 증광문과와 殿試에도 장원을 하였다. 병조판서, 대사헌등을 지내고 우의정에 추증되었다. 유만주가 교유한 사람 가운데 가장 현달한 인물이며, 「欽英」에서는 그의 호를 약칭하여 ‘紅堂’으로 불렀다. ‘綱’이라는 호칭도 나오는데 이것은 그의 자를 약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欽英 의 1786년 1월 18일조에 그가 「奇百怪叢集」을 기획하여 유만주에게 보여주었다는 기사가 있는데, 현전하지 않는다. 문집으로 「西漁遺稿」가 있으며, 洪直弼·鄭元容과 함께 「國朝大學衍義」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 19) 沈允之(1748~1821): 본관은 靑松, 자는 士執이다. 古阜郡守를 지냈다. 소설 「玉樹記」를 지은 沈能淑이 그의 아들이다. 「欽英」에서 그의 집은 ‘南阜’, ‘沈園’라고 자주 언급되는데, 權常愼의 문집 「西漁遺稿」에 있는 ‘南阜春約’이라는 글을 통해 이 집에서 교유하던 사람들과 자주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 20) 金相休(1757~1827): 본관은 光山, 자는 季容, 호는 蕉泉·華南山人이다. 문집 「華南漫錄」, 「華南漫錄續」, 「蕉泉遺稿」가 전한다. 權常愼·李安中·金履陽·任履周·沈允之·沈魯崇 등과 교유했다.
- 21) 吳熙常(1763~1833): 본관은 海州, 자는 士敬, 호는 老洲이다. 「欽英」에서는 ‘熙’라고 지칭되며, 俞晩柱의 맏아들 久煥을 가르쳤다. 구환이 요절하자 구환을 위해 ‘祭俞侄久煥文’, ‘俞童子久煥遺事’ 등의 글을 지었다. 저서로 「讀書隨記」, 「老洲集」 등이 있다.
- 22) 吳淵常(1765~1821): 본관은 海州, 자는 士默, 호는 約菴이다. 유만주의 처남으로. 1800년(정조 24년)에 별시에서 병과로 급제한 후 이조참판·부제학·도승지·비변사제조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約菴集」이 전한다.
- 23) 朴趾源(1737~1805): 본관은 潘南, 자는 仲美, 호는 燕巖이다. 박지원은 유만주의 아버지 유한준과 교유하였는데, 문학론의 차이로 갈등이 있어 오다가 결정적으로 산송이 붙어 절연하게 되었다. 박지원의 「燕巖集」 권5 映帶亭贖墨 ‘荅蒼厓’에서 유만주가 박지원을 찾아간 사실이 확인된다.
- 24) 朴胤源(1734~1799): 본관은 潘南, 자는 永叔, 호는 近齋이다. 유만주의 아버지 유한준과 평생지기로 교유하였고, 燕巖 朴趾源과도 죽친관계였다. 유만주를 어려서부터 지켜봐왔고 유만주가 요절하자 「俞君伯翠哀辭」(「近齋集」 권28)를 지어 애도했다. 문집에 「近齋集」, 「近齋禮集」이 있다.
- 25) 金光國(1727~1797): 본관은 慶州, 자는 元賓, 호는 石農이다. 「欽英」에서는 ‘石農老人’으로 불린다. 조선후기 대표적인 서화수장가로 대대로 내의관 집안이었다. 그는 내의관 중에서도 가장 직위가 높은 首醫를 지냈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가 많은 교서화를 모을 수 있었던 사회·경제적 배경이 되었다. 그는 특히 기계유씨 집안의 유한준, 유한지, 유만주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유한준·유한지·石農 畫苑跋’을 써 주었고, 유한지는 宜命命命命命 호로 김광국이 모은 그림에 篆書 또 命命命命書로 跋文을 대필하기도 하였다. 유만주는 「石

<표 1> 유만주의 가계도<sup>2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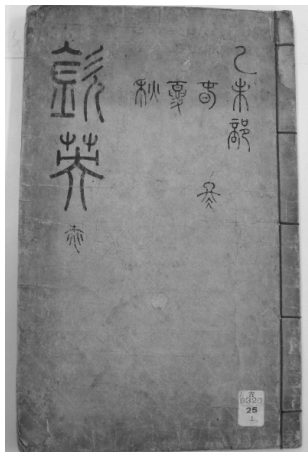
農畫苑」을 비롯하여 김광국이 소장한 신사임당의 '墨葡萄圖'를 감상하였으며, 서로 書簡을 주고 받기도 하였다(황정연, "석농 김광국의 생애와 서화수장 활동," 『미술사학연구』 235(2002), 61-66. 참조).

- 26) 李安中(1752~1791): 본관은 全州, 자는 平子, 호는 玄同·丹丘이다. 유한준과 절친하여 유한준이 그가 단양에 살던 집을 대상으로 '隨陽家記'(유한준, 『自著』 권18)라는 기문을 짓기도 하였다. 유만주는 그의 『丹霞索隱』 三篇을 보기도 하고(1780.10.17 / 3-246), 그의 시론에 대해 경칭하기도 하였다(1780.10.20 / 3-250). 또한 그의 『丹霞索隱』과 박지원의 『放瓊閣外傳』을 비교하여 평가했던 것도 확인된다(1785.11.17 / 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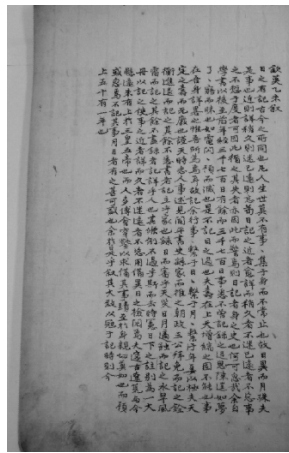
- 27) 俞致善 編, 『杞溪俞氏族譜』, 高宗 4년(1867).

## 2.2 「欽英」의 체제와 구성

「欽英」은 유만주가 죽은 뒤 유한준이 임로에게 부탁하여 정리하였다.<sup>28)</sup> 규장각 소장본은 그 때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임로는 「欽英」의 내용을 간추려 「通園稿」라는 문집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는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이화여자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sup>29)</sup> 「欽英」은 모두 13부 24책 16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책의 표지에는 王維의 6언시를 한 글자씩 떼어내어 이름을 붙였다.<sup>30)</sup> 이러한 책차표시는 기존의 책차표시 방식과 다를 뿐만 아니라 매우 특별함을 지닌다.



<도 1> 「欽英」 乙未部 표지



<도 2> 「欽英 乙未序」

- 28) 유한준, 『著菴集』 권14, “欽英日記序,” “且死 願謂其父曰 記日 兒未成之書也 請火之余執筆而泣曰 此 吾兒 精神志業名理言論識趣之所萃也 書雖未完 何可廢 托西河任魯整釐成帙 共五十編 家藏之.”
- 29) 서울대학교 규장각본은 필사본 6책으로 禮·樂·射·御·書·數로 나누어져 있다. 광곽과 패선은 목판으로 인쇄한 것이고, 내용은 필사하여 채워 넣은 것이다. 서근제는 ‘通’이며, 서근에 책수 표시가 있다. ‘4개의 서문-목록-본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欽英」과 마찬가지로 원문에 바로 필사를 가하거나 잘라내고 덧붙여 수정한 부분도 있고, 따로 종이에 적어 붙여놓기도 하였다.
- 30) 王維의 “田園樂七首” 중 한 수이다. “桃紅復含宿雨 柳綠更帶朝烟 花落家僮未掃 鳥啼山客猶眠.”

표지에는 篆書로 欽英이라는 제목과 각 책의 이름, 部名, 春·夏·秋·冬의 시기를 적어놓았는데, 이 글씨는 兪漢芝가 써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1)</sup> 본문은 두 사람 이상의 글씨로 정사되어 있고, 중간 중간에 첨삭을 가한 곳도 보인다. 첨삭을 할 때에는 원고에 바로 표시하거나 종이를 오려내고 덧댄 경우도 있다. 단순히 표현을 바꾼 부분도 있고,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삭제한 부분도 있으므로 수정 전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欽英」의 체제와 구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欽英」의 체제와 구성

冊數	冊次	部名	卷數	序文	目次	年月日
1	桃	乙未部	1~13	欽英乙未叙	欽英乙未部目次	1775. 1~1775. 12
2	紅	丙申部	14~25	欽英丙申叙		1776. 1~1776. 12
3	復	丁酉部	26~31	欽英丁酉叙		1777. 1~1777. 6
4	含		32~37			1777. 7~1777. 12
5	宿	戊戌部	38~44			1778. 1~1778. 閏6
6	雨		45~50			1778. 7~1778. 12
7	柳	己亥部	51~56		欽英閣微流叢目	1779. 1~1779. 6
8	綠		57~62		1779. 7~1779. 12	
9	更	庚子部	63~68	欽英庚子叙	欽英集記 庚子部目次	1780. 1~1780. 6
10	帶		69~74		欽英集記目次	1780. 7~1780. 12
11	朝	辛丑部	75~81	欽英辛丑叙 <sup>32)</sup>	欽英集記 辛丑部目次	1781. 1~1781. 6
12	烟		82~87		欽英集記 辛丑部目次	1781. 7~1781. 12
13	花	壬寅部	88~93			1782. 1~1782. 6
14	落		94~99			1782. 7~1782. 12
15	家	癸卯部	100~105			1783. 1~1783. 6
16	僮		106~111			1783. 7~1783. 12

31) 황정연, 앞의 논문, 320.

32) 신축(1781)년 서문은 내용은 없고 제목만 남아 있다.

17	未	甲辰部	112~118			1784. 1~1784. 6
18	掃		119~124			1784. 7~1784. 12
19	鳥	乙巳部	125~130			1785. 1~1785. 6
20	啼		131~136			1785. 7~1785. 12
21	山	丙午部	137~142			1786. 1~1786. 6
22	客		143~149			1786. 7~1786. 12
23	猶	丁未部	150~154			1787. 1~1787. 5. 15
24	眠	丁未支部	154~161	欽英稽徵元本 丁未支部叙		1787. 5. 16~1787. 1

<표 2>를 보면, 1775년과 1776년은 각각 한 책으로 묶고, 나머지 해는 모두 6개월 단위로 한 책으로 묶어 전체 24책으로 만들었다. 또 1년을 한 부로 편성하고, 한 달을 한 권으로 하여 총 161권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33)</sup> 위의 표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일반적인 일기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서문과 목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서문은 한 해의 일기가 끝날 때마다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을미(1775), 병신(1776), 정유(1777), 경자(1780), 정미(1787)년의 서문만이 남아 있다. 목차는 1, 7, 9, 10, 11, 12책에만 기재되어 있는데, 유만주가 그 달에 읽은 책과 저술한 문장의 제목 등이 나열되어 있다. 초고본에도 존재했던 것인지 임로가 정리하면서 만든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본문이 특정한 글씨체로 필사된 부분에만 나타나고 있어 후일에 정리하면서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sup>34)</sup>

33) 권의 이름은 春·夏·秋·冬을 다시 孟·仲·季로 나누어 이름을 붙였다. 예를 들면 孟春卷, 仲春卷, 季春卷이라고 이름 한 것이다.

34) 배기표, “통원 유만주의 문학론: 흥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7-18.

### 3. 『欽英』의 도서해제 분석

#### 3.1 『欽英』의 목록기입법 분석

유만주는 매일 독서하면서 자신이 독서한 기록들을 『欽英』에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간단히 자신이 읽은 서명만 기록한 것도 있고, 도서해제의 성격을 갖는 좀 더 상세한 기록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독서기록 중에서 도서해제에 해당하는 기사를 선정하여 목록화 시키는 과정을 통해 유만주의 도서해제 221종<sup>35)</sup>을 추출해낼 수 있다.

먼저 이 도서해제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유만주가 어떠한 방식으로 목록을 기입하였는지 분석해보도록 하겠다.<sup>36)</sup> 아래는 「唐詩別裁集」의 해제에 해당하는 기사이다.

靜閱「唐詩別裁集」六冊 康熙末 長洲沈德潛·陳培脉 同選 藏版于碧梧書屋 編詩之年 當肅廟丁酉 距今爲六十二年 其序略云…<sup>37)</sup>

35) 본고에서 유만주의 해제로 선정된 것은 도서해제에 해당한다. 『欽英』에는 서예나 그림을 보고 그 작품에 대해 해제 또는 평가한 기록도 상당수 있는데 그러한 기록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독서기록의 내용 중에는 그 서적에 대해 문학적인 평가를 한 부분도 발견되는데 이 기록 또한 해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서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사를 위주로 선별한 것이다. 그리고 유만주가 독서한 책은 아니지만 풍문으로 접한 책에 대해서도 해제의 형식을 가질 경우도 수록하였다. 한편, 이 도서해제는 유만주의 독서기록에서 뽑은 것이므로 한 책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읽고 기록을 남겼을 경우에는 한 책에 여러 개의 해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포함시켰다. 해제의 본문을 정리하여 부록에 첨부하였는데, 그 중 길이가 긴 것은 지면상의 한계로 다 실지 못하고 앞부분만을 실었다. 위의 조건하에서 선별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이 도서해제 목록에는 『欽英』 전체에 등장하는 유만주의 읽었던 서적 중에 극히 일부만 반영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도서해제 목록만 보고 유만주의 독서범위에 대해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36) 목록기입법의 분석 방식은 리상용의 「연천홍석주의 서지학」(아세아문화사, 2004), 108-118.을 참고하였다.

37) (1778.3.23 / 2-28)

위를 분석해 본다면, ‘靜閱’은 독서방법, 「唐詩別裁集」은 서명, ‘六冊’은 책수, ‘康熙末’은 저작시기, ‘長洲沈德潛陳培脉’은 저자명, ‘同選’은 저작역할 표시, ‘藏版于碧梧書屋’은 장관의 보관장소, ‘編詩之年 當肅廟丁酉 距今爲六十二年’은 저작시기, ‘其序略云…’은 서문을 전제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목록 기입방식인 書名主記入法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만주의 도서해제는 위의 예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구성요소가 항상 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해제를 분석하여 나타난 구성요소를 모두 모아보면, 독서방법, 서명, 권·책수,<sup>38)</sup> 저작시기, 저자명, 저작역할 표시, 해제 내용,<sup>39)</sup> 서·발문을 인용하여 전제하는 부분<sup>40)</sup>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다시 말해, 유만주는 「欽英」에서 독서방법, 서명, 권책수, 저작시기, 저자명, 저작역할 표시, 해제 내용 또는 서·발문을 인용하여 전제하는 부분을 정식적인 목록기입의 구성요소로 하면서, 상황에 따라 간략화 또는 상세화하여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간략화된 해제의 예이다.

見「凌壺集」二冊 今歲孟秋 平壤府尹金鍾秀 印而跋之<sup>41)</sup>

위는 조선 후기의 서화가로 유명한 李麟祥(1710~1760)의 문집인 「凌壺集」의 해제이다. 찬자에 대한 정보는 빠지고 독서방법, 서명, 권책수, 저작시기, 平壤府尹 金鍾秀(1728~1799)가 간행하고 跋을 지었다는 해제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38) 「欽英」에서는 卷數, 冊數 외에도 상자수로 ‘匣’이라고 기술한 경우와 소설과 희곡의 回數를 기술한 ‘回’, 필첩의 수를 표현한 ‘帖’도 있다. 그러나 등장하는 빈도가 권·책수에 비해 드물고 권·책수와 같이 수량을 표현한 것이므로 목록의 구성요소에서 권·책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39) 해제 내용이란 지금의 도서해제의 본문으로 서지사항(독서방법, 서명, 권·책수, 저작시기, 저자명, 저작역할 표시)과 서·발문의 인용 부분을 제외한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40) 이 부분에는 凡例를 인용한 부분도 포함시켰는데, 범례가 기록된 경우는 극소수이고 대부분 서문이 주로 인용되었다.

41) (1779.12.3 / 2-572).

아래는 상세화된 해제의 예로 명나라 王圻(1498~1583)의 「續文獻通考」에 대한 해제이다.

閱「續文獻」凡七十五冊 原編三百五十四卷 萬曆丙戌 湖廣提學王圻續而增之 混宋寧宗嘉定以後 以迄于明朝萬曆 增節義諡法六書道統氏族方外六考 而田賦考 增黃河太湖三江河渠 國用考 增海運 學校考 增書院義學<sup>42)</sup>

이는 독서방법, 서명, 권·책수, 저작시기, 저자명, 저작역할표시, 해제 내용으로 정식 구성 중에서 서·발문 인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표현된 것이다. 그에 따르면, 「續文獻通考」는 모두 74책으로 原編은 354권이었는데 만력 병술년(1586)에 湖廣提學이었던 王圻가 「文獻通考」를 이어서 증보한 것이다. 이것은 송나라 寧宗 嘉定년간 이후로부터 명나라 萬曆년간에 이르기까지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증보한 부분은 節義考, 諡法考, 六書考, 道統考, 氏族考, 方外考 등의 6항목이고 田賦考에서는 黃河, 太湖三江, 河渠가 國用考에는 海運, 學校考에는 書院, 義學이 增入되었다. 이는 현재 알려진 정보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유만주가 서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해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2 목록 구성요소의 반영과 해제 내용

유만주의 도서해제의 구성요소는 일정하게 기술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살펴보아서는 자주 등장하는 항목, 즉 유만주가 기술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항목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 하므로 전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아래의 <표 3>은 실제 이 구성요소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유만주의 도서해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

42) (1779.9.15/2-501).

<표 3> 유만주의 도서해제 구성요소 반영 분석

순번	서명	도서해제의 구성요소							
		독서 방법	서명	권·책수	저작 시기	저자명	저작역할 표시	해제 내용	서·발문 인용
1	虞初新志	○	○		○	○		○	
2	資治通鑑綱目	○	○			○	○		
3	古今說海	○	○					○	
4	美人書	○	○	○		○	○	○	
5	古杭文獻	○	○	○		○	○		
6	文獻通考	○	○		○	○		○	
7	幾何原本	○	○		○	○	○	○	
8	廣輿記	○	○	○	○	○	○	○	
9	朱子全書	○	○	○	○	○	○	○	
10	經書讀本	○	○	○	○	○	○	○	
11	道德經元翼	○	○		○	○	○	○	
12	朱子詩傳疏義		○	○	○	○	○		○
13	西湖遊覽志餘	○	○	○	○	○	○	○	
14	杜詩分類集註		○	○	○	○	○	○	
15	孔子通紀	○	○	○	○	○	○		
16	御定欽恤典則	○	○	○				○	
17	唐詩別裁集	○	○	○	○	○	○	○	○
18	默隱小草	○	○	○		○			
19	明宗甲子司馬榜目	○	○					○	
20	續明義錄	○	○					○	
21	水滸後傳	○	○	○		○	○		○
22	明詩歸	○	○	○		○	○	○	
23	玉合記	○	○	○	○			○	
24	西湖遊覽志	○	○	○		○	○		○
25	簡易堂集	○	○						○
26	海東記		○			○	○	○	
27	啓禎野乘	○	○	○	○	○	○	○	
28	滿漢縉紳全書	○	○	○	○	○	○		
29	明季遺聞	○	○	○					○
30	石珠演義	○	○	○				○	
31	瀛奎律髓	○	○	○	○	○	○		
32	諸子奇賞	○	○	○		○	○		○

33	古詩歸	○	○	○		○	○		
34	二一史略	○	○	○	○	○	○	○	
35	前漢書	○	○	○		○	○	○	
36	玉合記	○	○	○				○	
37	唐宋八大家文抄	○	○	○				○	
38	妙法蓮華經	○	○					○	
39	唐宋八大家文抄	○	○			○	○	○	
40	良役實摠	○	○			○	○	○	
41	奉教嚴辨錄	○	○	○	○	○	○		
42	精忠錄	○	○	○				○	○
43	英宗御製續賞訓/續 自省編	○	○	○	○	○	○		
44	奉教嚴辨錄	○	○	○	○	○	○		
45	昭惠王后御製內訓	○	○	○					
46	洪武正韻	○	○	○		○	○		○
47	大明律講解	○	○	○				○	
48	大典續錄	○	○	○	○	○	○		
49	大典後續錄	○	○	○	○	○	○		
50	左傳類抄	○	○	○		○	○	○	
51	因樹屋書影	○	○	○	○	○		○	○
52	小窓艷紀	○	○	○				○	
53	槎川詩鈔	○	○				○	○	
54	玉合記	○	○	○				○	
55	楞嚴	○	○					○	
56	丹陵山人遺集	○	○	○				○	
57	續文獻通考	○	○	○	○	○	○	○	
58	文編	○	○	○		○	○		
59	西遊真詮	○	○			○	○		○
60	唐詩類苑		○	○	○	○	○		○
61	芥子園畫傳	○	○	○				○	
62	明史綱目	○	○	○	○	○	○	○	
63	凌壺集	○	○	○				○	
64	小窓自紀	○	○	○				○	
65	洪譜	○	○	○				○	
66	明文奇賞	○	○	○	○	○	○		
67	米襄陽志林	○	○	○	○	○	○	○	

「欽英」에 나타난 通園 俞晩柱의 도서해제에 대한 연구

68	宋五吾集	○	○	○				○	
69	禮記補註	○	○	○	○	○	○		
70	荊山全集	○	○	○					○
71	嘯餘譜	○	○	○				○	
72	詞律		○	○	○	○	○		
73	清搢紳全書	○	○	○				○	○
74	北曲譜	○	○					○	
75	郡縣之制草本	○	○	○		○		○	
76	磻溪隧錄	○	○	○		○	○		○
77	楓嶽記	○	○		○	○	○	○	
78	東國輿地志	○	○	○		○	○		
79	文翼公金石摠目	○	○					○	
80	內閣節目	○	○	○				○	
81	再造藩邦志	○	○	○	○	○	○	○	
82	昆明演義	○	○					○	
83	國初以來大臣年表	○	○	○					○
84	東園彙言	○	○	○				○	
85	浪華僧佚山傳家	○	○	○				○	
86	太上黃庭內外二景經	○	○	○		○	○		
87	覺夢雷	○	○	○		○	○	○	
88	高麗史	○	○	○					
89	文翰類選大成	○	○	○	○	○	○	○	
90	紫微斗數	○	○	○		○	○		
91	白沙先生北遷日錄	○	○			○	○	○	
92	星湖僿說類選	○	○	○		○	○	○	○
93	丙獄始末	○	○						
94	四部藁	○	○	○				○	
95	乙巳傳聞錄	○	○					○	
96	桑榆備覽		○	○		○	○	○	
97	三國志通俗演義	○	○	○	○	○	○	○	
98	宣和畫譜	○	○	○	○	○	○	○	
99	昨非菴日纂	○	○	○		○			
100	袁中郎文抄	○	○						○
101	寶穉堂閑居偶錄	○	○	○				○	
102	性理大全	○	○	○		○	○		
103	理學全書	○	○		○	○	○		

104	荊川史纂左編	○	○	○					○
105	京外奴婢續案	○	○	○				○	
106	資治通鑑目錄	○	○	○		○	○		
107	赤壁賦	○	○			○		○	
108	地理人子須知	○	○	○	○	○	○	○	
109	剪燈新話	○	○					○	
110	帶經堂全集	○	○	○		○	○	○	
111	石臺孝經		○					○	
112	盛明百家詩	○	○	○		○	○		
113	御製諭海西繪音	○	○	○				○	
114	議世室倫音	○	○					○	
115	文選	○	○					○	
116	繪音	○	○	○				○	
117	新鐫濃情小部	○	○	○		○	○		
118	東儒師友錄	○	○	○		○	○	○	
119	首陽日記	○	○					○	
120	胡天子御製全韻詩	○	○		○			○	
121	覺世名言	○	○	○		○		○	
122	精訂攝生秘剖	○	○					○	
123	御製叙雷淵子稿	○	○			○	○	○	
124	鷓冠子	○	○					○	
125	禪頌	○	○	○				○	
126	崇儒重道繪音	○	○		○	○	○		
127	通醫	○	○	○		○	○	○	
128	玉殿生春	○	○	○				○	
129	說鈴	○	○	○	○	○	○		
130	密翁書夫子文經	○	○	○				○	○
131	西湖佳話	○	○	○		○	○		
132	歷代史纂左編	○	○	○	○	○		○	
133	小學	○	○			○		○	
134	吳梅村詩集	○	○	○		○	○		○
135	吳初新志	○	○	○					○
136	李杜詩選	○	○	○				○	
137	古文韻律	○	○	○		○			○
138	歷史年表	○	○	○	○			○	
139	鄭氏印叢	○	○					○	

「欽英」에 나타난 通園 俞晩柱의 도서해제에 대한 연구

140	李匡師左右帖	○	○	○				○	
141	奎章閣志/弘文館志	○	○	○	○			○	
142	鯖徂錄	○	○	○					○
143	三韓叢書	○	○	○				○	○
144	皇極一元圖	○	○	○					○
145	學山堂印譜	○	○	○	○	○		○	
146	思辨錄輯要	○	○	○				○	
147	西廂記	○	○	○	○			○	
148	枚卜錄	○	○	○				○	
149	刪補苑橋	○	○	○				○	
150	憑山閣彙輯留青新集		○			○	○	○	
151	遁村野記	○	○	○		○	○	○	
152	小華詩評	○	○	○					
153	詩評補遺	○	○	○					
154	貫華堂詩目		○					○	
155	資治通鑑	○	○					○	
156	屯菴少宰雜識	○	○	○				○	
157	增訂敬信錄	○	○	○	○	○	○	○	
158	松雪學士書	○	○					○	
159	陶朱公致富奇書	○	○	○		○	○	○	
160	龍門綱鑑會纂	○	○					○	
161	樂府詩集	○	○	○		○		○	
162	薰陶坊鑄洞志	○	○	○				○	
163	雙錄/彙言漫錄/庚三 先後錄抄	○	○	○		○			
164	通鑑論畧, 宋鑑論畧	○	○	○				○	
165	陸宣公奏議		○					○	
166	江湖長翁集	○	○	○	○	○	○	○	
167	東林列傳	○	○			○	○	○	
168	墨庄記	○	○	○				○	
169	四漫識	○	○	○				○	
170	冊封慶文武試榜刻	○	○	○				○	
171	瑣話	○	○	○				○	
172	禦眠楮		○	○		○	○	○	
173	新註無冤錄	○	○	○	○	○	○	○	
174	大典通編	○	○	○		○	○	○	

175	道書全集	○	○			○	○	○	
176	經世宏辭	○	○	○		○	○	○	
177	弇州山人四部稿選	○	○	○		○	○	○	
178	澤堂言行錄	○	○			○	○	○	
179	錦香亭	○	○	○	○	○	○		
180	崔陟傳奇	○	○	○	○	○	○		
181	神訣	○	○	○				○	
182	珠索	○	○	○				○	
183	大典通編	○	○					○	
184	厚齋筭記	○	○	○				○	
185	五家律詩	○	○	○				○	
186	籌邊頌畫	○	○		○	○	○	○	
187	周禮注疏刪翼	○	○	○	○	○	○		
188	砥易	○	○	○		○	○	○	
189	數理精蘊	○	○			○		○	
190	☒亭遺稿	○	○			○	○		
191	太平備覽	○	○	○				○	
192	墨幻	○	○	○				○	
193	古文采芳集	○	○	○				○	
194	士大夫可居處	○	○	○		○	○	○	
195	遜齋文集	○	○	○				○	○
196	敬齋箴	○	○	○				○	
197	甘藷經	○	○	○				○	
198	龍湖雅戲帖/輪彖故人錄/雅戲帖	○	○	○				○	
199	黃老江漢之書	○	○	○				○	
200	譜冊	○	○					○	
201	國朝文科榜目	○	○					○	
202	漢魏叢書	○	○	○		○	○	○	
203	醒心錄	○	○	○				○	
204	昌寧成氏家乘	○	○	○				○	
205	家狀	○	○	○				○	
206	止亭亂稿	○	○	○				○	
207	汗蒐		○	○				○	
208	朝鮮人大行列記	○	○	○	○	○	○	○	
209	徽綱	○	○		○	○	○	○	

「欽英」에 나타난 通園 俞晚柱의 도서해제에 대한 연구

210	尹拯年譜	○	○	○		○	○		
211	後自警編	○	○	○		○	○	○	
212	御筆孟子諺解	○	○					○	
213	說郛	○	○	○				○	
214	知不足齋叢書	○	○					○	
215	新刻京臺公餘勝覽國 色天香	○	○			○	○	○	
216	山海經	○	○	○		○	○	○	○
217	葵窓集	○	○			○		○	
218	漢魏叢書	○	○	○		○	○		
219	孔叢子	○	○					○	
220	春波日月錄	○	○	○				○	
221	洞浩皇明世法錄	○	○			○	○	○	
합계		209	221	161	54	114	99	162	28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자세한 경우라도 정식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한 가지는 빠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구성요소의 출현빈도는 확연히 차이를 보이며 일부 항목만 유난히 고정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출현빈도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 유만주의 도서해제 구성요소

구성요소	독서 방법	서명	권·책수	저작 시기	저자명	저작역할 표시	해제 내용	서·발문 인용
백분율	94.6	100	72.9	24.3	51.6	44.8	73	12.6

위의 표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면 서명, 독서방법, 권·책수, 해제 내용, 저자명, 저작시기, 서·발문 인용의 순서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유만주가 독서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시 했던 항목의 순서이며, 도서해제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항목순이다. 여기에서 유만주의 해제가 독서 기록이라는 데서 오는 ‘독서방법’이라는 항목을 빼면 유만주가 반드시 기록하고자 했던 것은 서명, 권·책수, 해제 내용의 세 가지 항목으로 압축할 수 있다.

한편, 구성요소 중 해제 내용을 살펴본다면 유만주가 책의 서지학적인 여러 정보 중에서도 어느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도서해제 중 해제내용이 기술된 162건을 살펴본 결과 크게 서적의 성립<sup>43)</sup>, 체제와 구성<sup>44)</sup>, 서문의 찬자<sup>45)</sup>, 장서인<sup>46)</sup>으로 나타나 이 분야에 특히 중점을 두고 도서해제를 해나갔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서적의 성립은 그 책이 어떻게 찬술되었는지 간단히 정의한 것이고, 체제와 구성은 그 서적의 목록을 보고 서술하였다. 또한 어느 시기 누가 서문을 썼는가를 기술하였는데, 이것은 구성요소 중 저작시기, 저자명과 동일 선상에서 서술한 것이거나, 서문을 인용하려고 하다가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장서인에 대한 내용은 도서해제뿐 아니라 「欽英」 내에서 가끔 등장하는데, 이것은 당시 서적의 유통에 대한 유만주의 관심이 반영된 부분으로, 이것은 오늘날의 서지학 연구에 있어서 서적의 유통을 실제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마련해 주고 있다.

#### 4. 洪奭周의 「洪氏讀書錄」과의 비교

우리나라의 서목 가운데 해제가 쓰여진 것은 金侏의 「海東文獻總錄」(1627년),

- 
- 43)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虞初新志』와 『道德經元翼』의 해제가 있다. “閱『虞初新志』…虞初漢武帝時小吏 衣黃乘輜 采訪天下異聞 新志之名 蓋以是也”(1775.3.4/1-26)/ “見『道德經元翼』明焦弱侯彙六十四家 評註 輯爲一統”(1777.5.9/1-341).
  - 44) “見『古今說海』凡一百三十五種 分說選說淵說略說 纂四部 每編印潞國世傳 及敬一主人之印 聞是錦宮之藏”(1776.2.13/1-114)/“閱『廣輿記』記 凡五冊 明陸應陽輯 申時行叙 分京師·江南·山西·山東·河南·陝西·浙江·江西·湖廣·泗川·福建·廣東·廣西·雲南·貴州·九邊·外國十七目”(1777.4.2/1-313).
  - 45) “見『啓禎野乘』凡十二冊 清初梁谿鄒漪傳 始於福倩葉文忠公向高 終徽州江節婦 合二百六十八人 石渠舊史虞山蒙叟錢謙益謹叙”(1778.6.18/2-82)/ “閱『吳從先自紀』凡四冊 萬曆甲寅立秋日蕉弱侯序之”(1779.12.17/2-580).
  - 46) “見『御製諭海西綸音』一冊 安『諭書之寶』”(1782.9.28/4-405)/ “見金陵本『李杜詩選』(四冊) 有楊升庵批評 皆宋字 每卷識『文獻之章』 下識『春坊內府之藏』”(1784.윤3.2/5-179).

徐浩修의 「奎章總目」(1781년), 徐有槩의 「鏤板考」(1796년), 洪奭周의 「洪氏讀書錄」(1810년)이 있다. 이 중 홍석주의 「홍씨독서록」은 「欽英」과 시기적으로 비슷하면서 개인이 편찬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서는 홍석주의 「홍씨독서록」과 유만주의 해제를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각각의 분류체계에 살펴보도록 한다. 「홍씨독서록」의 분류체계는 기본적으로 사부분류체계로 경부 10문 16목, 사부 4문 11목, 자부 15문 6목, 집부 1문 2목 등 전체 30문 35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四庫全書簡明目錄」의 영향으로 類序를 갖추고, 동일 유목 내에서 저자의 선·후학 순으로 배열하였다.<sup>47)</sup>

유만주의 도서해제는 정식적인 해제서가 아니므로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대신 「欽英」 내 기사 중 유만주가 분류체계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으므로 소개하고자 한다.

十部라는 것은 經·史·子·集·書·畫·譜·類·志·說인데 지금 세상에서는 늘 經史子集을 四部라고 하나 子部가 세상에서 사라진 지가 또한 이미 오래 되었다. 예컨대 道園郁難과 같은 것은 역지로 子體를 본받고 子部를 채웠을 뿐이라고 하니, 子部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후세에 자로서 이름 할 수 있는 것은 經史 외에 전문적인 서적일 뿐이다. 兵·農·醫·卜·星·歷 등의 모든 전문적이면서 一書가 되는 것이 모두 이것이며, 대개 후세에 子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九流의 舊目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비록 별도로 새로운 목차(항목)를 잡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것이 類子가 살 수 있는 법이 된다. 우리나라의 서적으로서 논의하면 「鄉藥集成方」은 실로 마땅히 醫家로서 子部에 속하게 해야 하고, 迂書는 마땅히 經濟家로서 子部에 속하게 해야 하고, 「橘譜」는 마땅히 名物家로서 子部에 속하게 해야 하고, 東遊錄은 遊覽家로서 子部에 속하게 해야 하니, 이것이 또한 우리의 신법이고 진실로 장서가의 아름다운 제도가 될 것이다. 만약에 다시 구구하게 노자, 장자, 신불해, 한자를 도습하여서 뜻을 꺾고 자를 닳게 하여 부질없이 실제 쓰이는 것이 없는 것은 서적의 賊이다.<sup>48)</sup>

47) 이상용, 「역주 홍씨독서록」, 아세아문화사, 2006, 10-12.

48) “十部者 分經·史·子·集·書·畫·譜·類·志·說 議 今世每稱經史子集 爲四部 而子之不有於世 亦已久矣 如道園郁難之類 強効子體 強充子目而已者 不足云子也 後世之可以子名者 惟經史外專門之書乎 兵農醫卜星歷 凡專門而爲一書者 皆是也 皆可爲後世之子也 不必依附九流之舊目 因此而托彼也 止雖別立新目 無不可也 斯爲類子之活法也 以東邦論之 「鄉藥集成方」 固當以醫家 而屬之子矣 「迂書」 當以經濟家 而屬之子也 「橘

十部라는 것은 유만주가 독자적으로 만든 분류체계로 經·史·子·集·書·畫·譜·類·志·說로 구성된다. 유만주의 10부 체계는 經史子集의 四部 체계를 세분화시킨 것이다. 書·畫·譜·類·志·說 중에 書·畫·譜·類·志는 史部에서 세분화한 것이며, 說은 集部에서 세분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史部의 분류를 5部로 세분화한 것에서는 역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정리하려는 노력으로, 이것은 「欽英」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그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만주는 經史子集의 四部 체계에서 子部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으므로 子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넣을 것이 아니라, 經史 외의 전문적인 서적인 兵·農·醫·卜·星·歷 등을 子部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九流의 舊目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별도로 새로운 항목을 잡는 것이 현명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적을 예로 들어 子部의 분류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鄉藥集成方」은 醫家로 子부에, 迂書는 經濟家로 子부에, 「橘譜」는 名物家로 子부에, 「東游錄」은 遊覽家로 子부에 속하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만든 법이며, 진실로 장서가의 아름다운 제도가 될 것이라 하였다. 오늘날의 분류체계에서는 子部 아래에 ‘儒家類’, ‘道家類’, ‘釋家類’ 등을 두는데, ‘醫家’는 지금의 분류법에서도 존재하는 항목이며, ‘經濟家’, ‘名物家’는 지금의 분류법은 물론 다른 분류체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유만주만의 독특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목록기입법에 있어서 「홍씨독서록」과 유만주의 해제는 모두 서명주기입법을 취하고 있다. 「홍씨독서록」은 대체로 서명, 권수, 저작시기, 저자명, 저작역할 표시 및 해제로, 유만주의 해제는 독서방법, 서명, 권·책수, 저작시기, 저자명, 저작역할 표시, 해제 내용, 서·발문 인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요소로 본다면 유만주의 해제가 더 상세한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 두 해제를 비교해 보면 홍석주의 해제가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은 앞서 분석하였듯이 유만주 해제

譜」當以名物家 而屬之子也 東游錄 當以遊覽家 而屬之子也 是亦我之新法 而允爲藏書家之美制也 若復區區踏襲於老莊申韓 刻意肖子 而漫無實用者 書之賊也.”(1785.6.29 / 5-533).

의 구성요소는 정식구성 요소일 뿐, 실제 해제에서는 그것을 모두 반영한 해제가 드물기 때문이다. 홍석주와 유만주가 서로 같은 도서를 해제한 것을 비교해 보면 그것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다음은 「高麗史」에 대한 각각의 해제이다.

高麗史一百三十七卷 本朝鄭麟趾所修也 稱麗史者 取其該瞻 疵麗史者 病其不公 其文則大抵不足觀也 然麗之去 本朝最近 生乎本朝者 固不可不知麗史也<sup>49)</sup>

朝關 「高麗史」一百三十七卷編九十冊<sup>50)</sup>

위는 홍석주의 해제이고 아래는 유만주의 해제이다. 유만주의 해제는 홍석주의 해제에 비해 매우 소략하다.<sup>51)</sup> 「고려사」외에도 같은 도서를 해제한 것으로 「孔叢者」, 「山海經」, 「幾何原本」, 「楞嚴經」, 「唐宋八大家文抄」, 「文獻通考」, 「三國志」, 「小學」, 「資治通鑑」, 「朱子全書」, 「性理大全」 등도 있는데 이 또한 홍석주의 해제가 훨씬 자세한 편이다. 그러나 유만주의 해제에는 서·발문이라는 구성요소가 있어 이것이 포함될 경우에는 그 어떤 해제보다도 양적으로 방대해지기도 한다. 이는 유만주의 서적의 간행과정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 준다는 것으로서·발문에는 그 서적이 누구의 주도로, 어떤 의도로, 언제 간행되었는가에 대해 상세히 나오기 때문에 주목하게 되었던 것이다.<sup>52)</sup> 「欽英」에서의 서·발문은 불

49) 리상용, 앞의 책, 122.

50) (1781.9.6/4-76).

51) 그가 한 다른 해제 중에서 가장 간략한 형태라서 비교하기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 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홍석주의 해제에 비해 소략함을 알 수 있다.

52) 序文을 중시한 예는 명말의 장서가 祁承燠(1563~1628)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기승환은 서적이 간행될 때, 출판과 관련되었거나 저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序文을 작성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어떤 인쇄본의 서문을 읽는다면, 그 서적이 어디에서 저본을 구했고,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출판되었는지 사정을 알게 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諸公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序文들을 채집하여 하나의 목록을 만든다면, 서적을 사는데 지침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기승환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통시대에 없었던 “출판물 목록의 작성을 주장한 획기적인 것”이었다는 평가가 내려진 바 있다. 유만주는 주로 독서한 후에 그 서적의 서문을 전제했기 때문에 구서정보를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序文에 나와 있는 그 간행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채집했다는 것에서는 기승환과 일치한다

특정하게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어떤 서적을 읽었다는 기사의 뒤에 그 서적의 서·발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해제의 한 구성요소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유만주의 도서해제를 다른 해제와 차별화시켜주면서 해제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 5. 결 론

본고에서는 「欽英」 내 도서해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기사를 모아 유만주의 독서록(해제목록)을 재구성하여 그것을 분석해 보았다. 또 이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던 홍석주의 독서록에 나오는 해제와의 비교를 통해 유만주의 도서해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먼저 「欽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유만주는 조선후기 대표적인 별 열가문 중에 하나인 杞溪俞氏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가 자주 교유했던 사람들은 친척이었던 從伯 俞駿柱, 族祖 俞彥鎬와 같은 노론계열 자제들이었던 任魯, 權常愼, 吳熙常 등이 있었다. 유만주는 영조 51년(1775, 乙未) 1월 1일부터 정조 11년(1787, 丁未) 12월 14일까지 13년간에 걸쳐 일기를 작성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欽英」이다.

그의 일기 중에 독서기록은 지금의 도서해제와 비슷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를 본고에서는 유만주의 도서해제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추출한 221종이 기술된 목록기입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정식 구성요소에는 독서방법, 서명, 권·책수, 저작시기, 저자명, 저작역할 표시, 해제 내용, 서·발문을 인용하여 초록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전체를 분석한 결과 이상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없고 가장 기본적인 서명, 권·책수, 해제 내용의 세 가지 항목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한편 해제 내용에 있어서는 서적의 성립, 체제와 구성, 서문의

---

(황지영, “明末清初 科擧수험용 書籍의 상업출판과 전파,”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93. 참고).

찬자, 장서인으로 나타나 이 분야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홍석주의 「홍씨독서록」과의 비교에서 유만주의 해제는 체계적으로 편찬하지 않은 태생적 한계로 여러모로 홍석주의 해제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지만 유만주만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류체계에 있어서 홍석주의 전통적인 사부분류와 다른 독자적인 十部 분류 체계를 제안했다. 목록기입법에 있어서 「홍씨독서록」과 유만주의 해제는 모두 서명주기입법을 취하고 있는데, 유만주의 해제는 서·발문의 인용이라는 독특한 구성요소가 추가되어 있었다.

요컨대 유만주의 도서해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조선후기에 현대 서지학의 관점으로 도 의미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며, 유만주가 초기서지학자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서지학사에서 개인이 편찬한 해제서는 「해동문헌총록」 이후 긴 공백기를 거쳐 홍석주의 「홍씨독서록」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欽英」에서 재구성한 유만주의 해제는 「홍씨독서록」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도 개인이 작성한 도서 해제의 성격을 갖는 기록이 존재하였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이 연구가 소략한 해제서의 계통을 보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俞晩柱. 「欽英」1~6. 규장각자료총서 문학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7.  
\_\_\_\_\_. 「通園稿」.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俞漢雋. 著菴集. 여강출판사. 1987.  
\_\_\_\_\_. 「自著」. 한국문집총간 249권. 민족문화추진회. 2000.  
俞致善 編. 杞溪俞氏族譜. 1867.  
유치웅 편. 杞溪文獻. 부운장학회. 1963.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 1999.

- 리상용. 연천 홍석주의 서지학. 아세아문화사. 2004.
- 이민희. 16~19세기 서적중개상과 소설·서적 유통관계연구. 역락. 2007.
- 차장섭. 조선후기벌열연구. 일조각. 1997
- 한양대학교한국학연구소.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문화 지형도. 한양대학교출판부. 2006.
- 홍석주, 리상용 역. 「역주 홍씨독서록 . 아세아문화사. 2006.
- 홍선표. 17·18세기 조선의 외국서적 수용과 독서실태. 해안. 2006.
- \_\_\_\_\_. 「17·18세기 조선의 외국서적 수용과 독서문화. 해안. 2006.
- 강명관. “조선후기 서적의 수입 유통과 장서가의출현.” 민족문화사연구 9(1996).
- \_\_\_\_\_. “한 지식인의 독서 체험과 조선후기 문학 - 欽英 에 대하여-” 대동한문학 13(2000).
- 김영진. “俞晩柱의 한문단편과 記事文에 대한 일고찰.” 「대동한문학」 13(2000).
- \_\_\_\_\_. “18세기말 서울의 명·정서적 유통 실태- 欽英 을 중심으로-” 17·18세기 동아시아의 독서문화와 문화변동 . 2004.
- 김하라. “日記文學으로서의 「欽英」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 호. “18세기 후반 居京士族의 衛生과의료: 欽英 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1(1998).
- \_\_\_\_\_. “유만주가의 의료생활.” 조선시대 생활사 2 . 역사비평사. 2000.
- 박희병. “ 欽英 의 성격과 내용.” 欽英 1, 규장각자료총서 문학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7.
- 최자경. “俞晩柱의 소설관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배기표. “通園 俞晩柱의 文學論: 欽英 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논문. 2001.
- 옥영정. “摛文院의 藏書와 書目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12호(1996).
- 황정연. “조선시대 서화수장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황지영. “明末清初 科擧수험용 書籍의 상업출판과 진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부록> 「欽英」의 해제서와 그 내용53)

순번	날짜 /권수-페이지	서명	해제 본문
1	1775.3.4 /1-26	虞初新志	閱「虞初新志」…虞初漢武帝時小吏 衣黃乘輜 采訪天下異聞 新志之名 蓋以是也
2	1775.10.6 /1-81	資治通鑑綱目	閱「綱目」序例史應選序 陳明卿評
3	1776.2.13 /1-114	古今說海	見「古今說海」凡一百三十五種 分說選說淵說略說 纂四部 每編印諸國世傳 及敬一主人之印 聞是錦宮之藏
4	1776.5.10 /1-141	美人書	見「美人書」五冊 蓮溪居士周公輔選 自南齊蘇小小 至明朝李鮮鮮 合百有四人 集其詩詞書尺 本內庫所藏 先朝下月宮者云
5	1776.6.10 /1-157	古杭文獻	夜見「古杭文獻」四帖 錢塘人嚴誠·潘庭筠·陸飛書翰
6	1776.12.15 /1-265	文獻通考	閱「文獻通考」嘉靖中 命司禮監重刻 有肅皇帝序文 凡二十四考 經籍帝係·封建·象緯·物異五考則增「通考」所無 而餘皆因通考之舊
7	1776.12.27 /1-265	幾何原本	見「譯幾何原本引」萬曆丁未利瑪竇所作 蓋西洋治算數者 名曰幾何家云
8	1777.4.2 /1-313	廣輿記	閱「廣輿記」凡五冊 明陸應陽輯 申時行叙 分京師·江南·山西·山東·河南·陝西·浙江·江西·湖廣·四川·福建·廣東·廣西·雲南·貴州·九邊·外國十七目
9	1777.4.17 /1-322	朱子全書	見「朱子全書」二十四冊 康熙詔太學士熊賜履李光地等 就語類文集彙輯一帙 甲午成而爲之 序識稽古 右文之章 編稱「淵鑑齋御纂(朱子全書)」
10	1777.4.27 /1-329	經書讀本	見「經書讀本」五十九冊 正統十二年司禮監 奉旨新刊者也
11	1777.5.9 /1-341	道德經元翼	見「道德經元翼」明焦弱侯彙六十四家 評註 輯爲一統
12	1777.7.27 /1-396	朱子詩傳疏義	閱「震川別集」四冊 楊雄作
13	1777.9.7 /1-413	西湖遊覽志餘	元儒朱公遷 著「朱子詩傳疏義」二十卷 其序云…
14	1777.9.28 /1-444	杜詩分類集註	閱「西湖遊覽志餘」偏安逸豫二編 明錢唐田叔禾輯 凡十冊
15	1777.11.22 /1-472	孔子通紀	「杜詩分類集註」明錫山邵寶集注 凡二十四冊 序之者以爲…
16	1778.3.5 /2-20	御定欽恤典則	閱「孔子通紀」凡二冊 明弘治中 廣東提學潘府輯
17	1778.3.23 /2-28	唐詩別裁集	見「御定欽恤典則」(一冊) 刑具釐正 繪音一道 兼刑判蔡濟恭書棍制釐正 繪音一道…

53) 표에서의 “( )”는 원문상에 두줄로 細註처럼 나온 부분이며, “< >”는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에는 없는 글자를 삽입시킨 것이다.

18	1778.3.23 /2-39	默隱小草	靜閣『唐詩別裁集』六冊 康熙末 長洲沈德潛·陳培脉同選 藏版于碧梧書屋 編詩之年 當肅廟丁酉 距今爲六十二年 其序略云…
19	1778.4.15 /2-42	明宗甲子司馬榜目	夜見蔡希範『默隱小草』二冊
20	1778.4.16 /2-43	續明義錄	見『明宗甲子司馬榜目』李文成公·趙瑗爲生進壯元…
21	1778.5.1 /2-51	水滸後傳	始見『續明義錄』宣賜之書也
22	1778.5.17 /2-63	明詩歸	閱『水滸後傳』四十回 古宋遺民著 雁岩山樵評 遺民之序曰…
23	1778.5.25 /2-70	玉合記	閱『明詩歸』凡四冊 鍾譚所選定詩 凡一千三百 有奇取真性真情 結作纏綿 散爲幽悄 無不令人感歎 低回興觀懲創云
24	1778.6.1 /2-71	西湖遊覽志	閱『玉合記』一冊 上下四十齣 明時演戲本也
25	1778.6.8 /2-78	簡易堂集	閱『西湖遊覽志』凡六冊 錢唐田叔禾輯 嘉靖時其總序云…
26	1778.6.8 /2-80	海東記	閱『簡易堂集』張新豐序云…
27	1778.6.18 /2-82	啓禎野乘	『海東記』乃申叔舟所輯 而丁應泰所據以訛我者也 記中所書 如大書嘉吉元年 其下添註曰 即正統六年之類 其例乖謬創 見之者 無怪其生疑也
28	1778.6.22 /2-86	滿漢縉紳全書	見『啓禎野乘』凡十二冊 清初梁谿鄒鴻傳 始於福倩葉文忠公向高 終徽州江節婦 合二百六十八人 石渠舊史虞山蒙叟錢謙益謹叙
29	1778.8.6.16 /2-110	明季遺聞	閱『滿漢縉紳全書』二冊 序稱乾隆戊辰春 王內閣學士兼禮部侍郎葉一棟撰
30	1778.7.8 /2-138	石珠演義	閱『明季遺聞』凡四冊 其自序曰…
31	1778.7.18 /2-144	瀛奎律髓	閱『石珠演義』三十回 凡八冊 稱三國後傳武林發兌
32	1778.7.21 /2-149	諸子奇賞	閱『瀛奎律髓』凡十冊 元編四十九卷 元忽必烈至元癸未 方回選
33	1778.7.24 /2-159	古詩歸	見『諸子奇賞』凡十二冊 原編六十卷 古吳陳仁錫評選 凡三十二子 天啓丙寅孟冬朔日 序於燕邸云…
34	1778.8.10 /2-179	二一史略	見『古詩歸』八冊 鍾譚選定刻 青紅批評
35	1778.8.20 /2-187	前漢書	見『二一史約(略)』編八冊 清人鄭元慶述 將各史全目 具列簡端 而『明史』尙未頒行 故從吾學編紀事本末等書 補輯後編云
36	1778.8.22 /2-187	玉合記	見『前漢書』凡四十八冊 陳太史評閱 非評林本也
37	1778.9.8 /2-199	唐宋八大家文抄	閱『玉合記』上册 凡二十齣 其目云李王孫仙遊濁世 許中丞義合良緣 柳夫人章培名擅 韓君平禁苑詩傳
38	1778.9.9 /2-199	妙法蓮華經	見『八大家文抄』新註者三十八冊 今夏嶺營新刊

「欽英」에 나타난 通園 俞晩柱의 도서해제에 대한 연구

39	1778.9.8 /2-207	唐宋八大家 文抄	閱『妙法蓮華經』唐澄照禪師(名道宣)序 弘傳宋老高僧有序云
40	1778.11.16 /2-278	良役實摠	摠閱『唐宋八大家文抄』新本新刻 增入唐書五代史 坤所批注者
41	1778.11.16 /2-278	奉教嚴辨錄	見『良役實摠』嶺南條 三冊卷首有英宗御製序文 左議政趙顯命奉教書 其下又有癸亥七月傳教 考嶺南良役...英宗 年 查正良役刊頒成案于六道營邑
42	1778.12.5 /2-292	精忠錄	見『奉教嚴辨錄』一冊 首載英宗壬午御製序文 及傳教副護軍洪啓禧奉教書
43	1778.12.5 /2-292	英宗御製續賞訓 /續自省編	見『精忠錄』一冊 有肅英兩廟御製序文 下又有弘治十四年浙江巡按御史永州陳銓序曰...
44	1778.12.5 /2-292	奉教嚴辨錄	恭讀『英宗御製續賞訓』一冊『續自省編』一冊 『常訓』戊寅芸刻藏板于史閣春秋館記注官具允鈺奉教書 『自省編』己卯明政殿具允鈺奉教書
45	1778.12.6 /2-298	昭惠王后 御製內訓	見『奉教嚴辨錄』一冊 首載英宗壬午御製序文 及傳教副護軍洪啓禧奉教書
46	1778.12.8 /2-299	洪武正韻	恭閱『昭惠王后御製內訓』凡三冊 有親製序文...
47	1778.12.8 /2-299	大明律講解	見『洪武正韻』五冊 首刊英宗御製序文 輔國崇祿大夫前行判中樞府事致仕奉朝賀臣啓禧奉教謹書 下又有宋文憲公序略云...
48	1778.12.10 /2-301	大典續錄	見『大明律講解』四冊 分吏戶禮兵刑工六律
49	1778.12.10 /2-301	大典後續錄	見『大典續錄』一冊 成宗二十三年 命廣川君李克增·右贊成魚世謙·戶曹參判權健·吏曹參議李諱·禮議安瑠兵曹參知金首孫·刑議金謙·工議金斌等撰集 權健以兼藝提爲序弁卷
50	1779.3.13 /2-352	左傳類抄	見『大典後續錄』一冊 中宗三十八年 命領議政尹殷輔·左議政洪彥弼·右議政尹仁鏡·左贊成柳濯·工判柳仁淑·戶判成世昌等刪定 世昌以大提學奉教序
51	1778.5.18 /2-368	因樹屋書影	見『左傳類抄』二冊 起災異門 終和親門 車天輅輯
52	1779.6.17 /2-428	小窓艷紀	閱『因樹屋書影』凡八冊 康熙己亥 周亮工在講室中 詮次見聞 稱櫟下老人筆記 有杜濬序云...
53	1779.6.29 /2-447	槎川詩鈔	閱『小窓艷紀』六冊 延陵吳從先批選
54	1779.7.1 /2-461	玉合記	重閱『槎川詩鈔』洪樂純跋 戊戌清和書于溟上澄清軒
55	1779.7.26 /2-483	楞嚴	重閱『玉合記』二冊 上下各二十齣 其章題曰柳夫人章培名擅 韓君平禁苑詩傳 韓君平則韓翹也
56	1779.8.23 /2-495	丹陵山人遺集	『楞嚴』畢閱 編末有權近跋 謂此大字板本 太上殿下命書御覽 仍命鈔梓 以廣其傳云

57	1779.9.15 /2-501	續文獻通考	夜閱『丹陵山人遺集』一冊 端陽關西都巡察使金鍾秀 刻而跋之
58	1779.9.25 /2-506	文編	閱『續文獻』凡七十五冊 原編三百五十四卷 萬曆丙戌 湖廣提學王圻續而增之 混宋寧宗嘉定以後 以迄于明朝萬曆 增節義·證法·六書·道統·氏族·方外六考 而田賦考 增黃河·太湖·三江·河渠 國用考 增海運學校考 增書院·義學
59	1778.10.28 /2-546	西遊真詮	見『文編』六十四卷 唐荊川選批
60	1779.11.9 /2-554	唐詩類苑	閱『西遊真詮』稱長春真人 原本山陰陳士斌詮解 稱悟一子參解 證道書序曰…
61	1779.11.8 /2-554	芥子園畫傳	『唐詩類苑』凡二百卷 編七十五冊 明萬曆中 雲間張之象纂輯 馮元成序之言…
62	1779.11.18 /2-561	明史綱目	見『芥子園畫傳』凡五冊 有序稱康熙十八年己未長至後三日 湖上笠翁李漁 題於吳山之層園 言付梓之意 以為有是不可磨滅之奇書 而不以公曲 豈非天地間 一大缺陷事哉 園在金陵 笠翁金華人也 所著有笠翁一家言
63	1779.12.3 /2-572	凌壺集	夜閱『明史綱目』凡三十冊 肅宗癸未完山李玄錫撰 距崇禎甲申為六十年
64	1779.12.17 /2-580	小窓自紀	見『凌壺集』二冊 今歲孟秋 平壤府尹金鍾秀 印而跋之
65	1779.12.23 /2-586	洪譜	閱『吳從先自紀』凡四冊 萬曆甲寅立秋日蕉弱侯序之
66	1780.2.14 /3-20	明文奇賞	見『洪譜』凡十四冊 丙申仲春印出 圖五卷 譜九卷 先為圖 次為譜 圖以紀世 次譜以纂事實 圖衡譜縱 蓋倣歐陽譜例云
67	1780.6.20 /3-116	米襄陽志林	閱『明文奇賞』二十冊 天啓癸亥 陳仁錫評選
68	1780.7.2 /3-153	宋五吾集	見『米襄陽志林』三冊 明范明泰編 尙古堂增輯 卷首四序並李匡師書云
69	1780.9.27 /3-223	禮記補註	閱『宋五吾集』九冊 英宗庚辰印行
70	1780.10.9 /3-229	荊山全集	見『禮記補註』三十卷 英宗戊寅 金在魯輯
71	1780.10.26 /3-253	嘯餘譜	閱『荊山全集』五冊 本編十二卷 王道思序…
72	1780.10.26 /3-253	詞律	見『嘯餘譜』八冊 萬曆己未古歛程明善集 序於流雲館
73	1780.10.27 /3-254	清摺紳全書	『詞律』二十卷編分十二冊 康熙丁卯萬樹論次
74	1780.11.24 /3-280	北曲譜	見『清摺紳全書』四冊 己亥冬季新印 序稱…

「欽英」에 나타난 通園 俞晚柱의 도서해제에 대한 연구

75	1780.11.25 /3-281	郡縣之制草本	見「北曲譜」元人雜劇有馬致遠黃梁夢·王實父西廂記·關漢公哭香囊·三負心拜月亭·白仁父東牆記·喬夢符勸風情·侯正卿燕子樓 又明有楊文奎玉盒記·湯養仍牧丹亭
76	1780.12.5 /3-299	磻溪隱錄	見柳磻溪「郡縣之制草本」一冊 蓋未成之書 故不入刻
77	1780.12.10 /3-306	楓嶽記	見「柳磻溪集」五卷 李漢稱後學癸酉孟夏跋 集中有隨錄書後曰…
78	1781.1.12 /3-342	東國輿地志	見「楓嶽記」一卷 肅宗己丑秋 李陶菴出知伊川府 仍監楓嶽 而記之 楡帖寺古蹟 有梵字貝葉書二葉 盛以瑠花金匣 貝葉出西域 形如樺皮 而無斑文 其色淡黃 如土染指空書 佛經一帖 青質銀字 下畫佛像 青瑠大碟 三盛於紅櫃 仁穆手書彌陀經六帖 乃幽閉西宮時所書也 並以綠錦爲匣 每帖書祝願之辭 下書昭聖貞懿王大妃金氏識 至哉 坤元圖
79	1781.2.14 /3-369	文翼公金石摭目	見「東國輿地志」十卷 磻溪增輯
80	1781.3.14 /3-381	內閣節目	見「文翼公金石摭目」分三十二部 始於陵殿 終于寺塔
81	1781.5.2 /3-395	再造藩邦志	朝見「內閣節目」一冊 文之寶閣志一道 徐命膺譜 沁都史閣爲外 外奎章閣 以列朝圖籍 同乎內府也
82	1781.5.20 /3-404	昆明演義	閣「再造藩邦志」四冊 崇禎後己丑申寅輯 始丁丑 終丁酉
83	1781.6.1 /3-439	國初以來大臣年表	見「昆明演義」九負而竹 一庭前却 二城酪理 三達蓬辟 四火靛莞 五郊跳階 六鄉繭辭 七簾珍徐 八逸治潤
84	1781.6.8 /3-451	東圃叢言	見「國初以來大臣年表」二冊 有許筠萬曆辛丑序云…
85	1781.6.8 /3-451	浪華僧佚山傳家	見「東圃叢言」凡十四冊 其引用書 爲一百一十種
86	1781.6.10 /3-455	太上黃庭內外二景	見「浪華僧佚山傳家」二冊 有寶曆日本年號辛巳 自序云 校正清人石氏印言
87	1781.7.25 /4-46	覺夢雷	見「太上黃庭內外二景經」二冊 稱梁丘子註
88	1781.9.6 /4-76	高麗史	夜閣小說一部(名「覺夢雷」十回六冊 木鐸人新編 嗜臥老人題序)
89	1781.9.13 /4-79	文翰類選大成	朝閣「高麗史」一百三十七卷 編九十冊
90	1781.9.13 /4-79	紫微斗數	見「文翰類選大成」一百六十三卷 編五十冊 明淮府左長史李伯瓊奉康王命編輯 成化八年十月朔朝 康王序之
91	1781.9.13 /4-79	白沙先生北遷日錄	見「紫微斗數」三冊 稱陳希夷著
92	1781.9.20 /4-81	星湖僊說類選	閣「白沙北遷日錄」鄭錦南(鄭忠信)撰 南九萬序 李西河(李敏敘)跋

93	1781.10.4 /4-95	丙獄始末	夜閱『星湖僊說類選』十冊 說李翼所著也 分天地·人事·經史·萬物·詩文五大編 各編 又有小綱標題 周人尙文 其弊也 僬僬細瑣也 其『類選』凡例云…
94	1781.11.1 /4-101	四部彙	夜閱『丙獄始末』起肅宗丙戌五月二十五日 止丁亥八月十日溥潛獄案也 時領相崔錫鼎·左贊成尹拯·吏判李寅燁·兵判趙相愚·戶判趙泰采·禮判金農岩·刑判姜鏡
95	1781.11.28 /4-142	乙巳傳聞錄	閱『王翁州四部彙』五十卷 本編百七十四卷 萬曆五年閏月望日 新都汪伯玉(汪道昆)序
96	1781.11.28 /4-142	桑榆備覽	夜閱『乙巳傳聞錄』一卷 或名『幽憤錄』
97	1781.12.22 /4-207	三國志通俗演義	成虛白撰『桑榆備覽』六十餘卷 皆紀國朝故實 最關世道 而難中見失 無他刊本 遂絕云
98	1781.12.29 /4-209	宣和畫譜	閱大本『三國志通俗演義』(編二十五冊) 晉平陽侯陳壽史傳 後學羅本貫中編次 有弘治嘉靖時人序 或引始于漢靈帝中平元年 終于晉太康元年 凡九十七年 首有識清風金氏子孫世寶石記
99	1782.1.29 /4-222	昨非菴日纂	宋徽宗善畫 著『宣和畫譜』六本 譜晉唐以來 凡畫者 而分道釋·人物·宮室·番族·龍魚·山水·畜獸·花鳥·墨竹·蔬果爲十門 通得畫者 二百三十一人 畫六千三百九十六軸 而自製敘弁其卷首 其一段云…
100	1782.4.6 /4-259	袁中郎文抄	閱鄭瑄『昨非菴日纂』十八卷 編八冊
101	1782.4.22 /4-274	寶穡堂閑居偶錄	閱『袁中郎文抄』有雷思霏者 序之云…
102	1782.4.28 /4-285	性理大全	閱『寶穡堂閑居偶錄』六冊 稱鑑湖釣叟趙恬筆 分達觀·懿行·嘉言·陶情·曠懷·遺興·寄感·索思·博趣·條煩·消悶·寓意十二集
103	1782.5.18 /4-331	理學全書	閱『性理大全』二百二十九卷 編二十四冊 九我李太史纂
104	1782.6.4 /4-341	荊川史纂左編	見『理學全書』 清儒陸稼書張伯行諸人所編輯也
105	1782.6.4 /4-355	京外奴婢續案	見『荊川史纂左編』百四十二卷 編八十冊 總目云云 吳用先序之曰…
106	1782.7.17 /4-360	資治通鑑目錄	考『京外奴婢續案』八道兩都濟州三邑 凡四千三百四十二卷 掌隸院移來續案六百四十二卷 宣頭案八十一卷 京各司案二十二卷 都合五千八十七卷 入刑曹南東庫
107	1782.7.28 /4-377	赤壁賦	見金陵板『資治通鑑目錄』 編十三卷 卷稱長洲陳仁錫訂校
108	1782.8.11 /4-383	地理人子須知	見宋雪學士『赤壁賦』 赤壁窠大字
109	1782.8.25 /4-392	剪燈新話	閱『地理人子須知』(三十九卷編十六冊) 明徐善繼善述輯 萬曆癸未郢中重刻 分乾·坎·艮·震·巽·離·坤·兌八集 有建極殿大學士徐階序
110	1782.8.26 /4-392	帶經堂全集	夜閱『瞿話』 山陽洪武戊午序 曾編古今怪奇之事 以爲剪燈錄四十卷 新話則乃近事 遠不出百年 近只在數載云

「欽英」에 나타난 通園 俞晚柱의 도서해제에 대한 연구

111	1782.9.8 /4-399	石臺孝經	閱『帶經堂全集』(九十二卷 編三十二冊) 凡七編(漁洋五十二卷 蠶尾四十卷) 新城王士禛著 康熙辛卯門人程哲彙刻 有錢牧齋序詩 阮亭字貽上 崇禎甲戌生 年十八(順治辛卯) 舉于鄉乙未進士 年二十二康熙辛卯卒 年七十八
112	1782.9.10 /4-399	盛明百家詩	『石臺孝經』本分爲上下兩卷 謹於光順門 奉獻兩本以聞 下又有明皇草書御批 下又有臣僚職名 其記名中 有高陵縣丞翰林院學士丁景縣丞 而帶學士 始見於此 有王府參軍司徒 臣源司徒之姓 歷代罕見 考之『綱目』 時則安祿山楊貴妃李林甫寵幸極亂之時也 書孝經何爲哉
113	1782.9.28 /4-405	御製論海西繪音	水西見『盛明百家詩』(七十餘卷) 俞憲輯
114	1782.11.29 /4-440	議世室倫音	見『御製論海西繪音』一冊 安『論書之寶』
115	1782.12.15 /4-442	文選	夜見內賜『議世室倫音』刊本 安『奎章之寶』
116	1783.1.12 /4-458	繪音	紅堂見宋板『文選』 下界畫 下又有大界畫 其外間細刻音注
117	1783.1.22 /4-462	新鐫濃情小部	恭閱內賜『繪音』一冊 安『奎章之寶』
118	1783.2.2 /4-469	東儒師友錄	閱『新鐫濃情小部』三十回 稱餐花主人編次 西湖鸚鵡居士評閱
119	1782.2.10 /4-471	首陽日記	見『東儒師友錄』十八卷 朴世采輯 仍論退尤文章尋之挂之 小巷荒乎落哉 不遇而還
120	1783.4.20 /4-518	胡天子御製全韻詩	偶閱『首陽日記』 由建酉 訖建丑 折計文字二千九十二(九九)
121	1783.4.24 /4-520	覺世名言	閱『胡天子御製全韻詩』 戊戌所詠也 其序云…
122	1783.4.29 /4-522	精訂攝生秘剖	閱李漁『覺世名言』十二種 題以木鐸餘音 順治戊戌(中秋日)鍾夕+佳潒水序 稱覺世裨官編次·睡鄉祭酒批評 合三十八回
123	1783.6.6 /4-551	御製叙雷淵子稿	夜閱『精訂攝生秘剖』 卷下安置爐異者 乃廣成子授黃帝補虛之法也…
124	1783.6.7 /4-552	鷓冠子	恭閱『御製叙雷淵子稿』 奎章閣直提學沈念祖奉教書 安奎章之寶
125	1783.6.27 /4-567	禪頌	閱『鷓冠子』 卷首有題武英殿聚珍板十韻 稽古搜四庫 於今 突五車…
126	1783.7.4 /5-8	崇儒重道繪音	取閱『禪頌』(三十券) 貞祐(金宣宗年號)十四年(丙戌) 海東曹溪山無衣子序
127	1783.8.4 /5-27	通醫	軒見『崇儒重道繪音』刻本 癸卯正月 奎章閣檢校直閣察理使徐鼎修奉教書
128	1783.8.23 /5-40	玉殿生春	或見『通醫』四冊 聞是醫林所輯 可列之叢書
129	1783.9.20 /5-57	說鈴	重閱『玉殿生春』(回三十卷四) 始唐文皇大放花灯 終唐睿宗帝道重光
130	1783.12.11 /5-109	密翁書夫子文經	閱『說鈴』二十冊 稱本朝名家雜著清御史語溪吳氏輯

131	1783.12.26 /5-114	西湖佳話	閱『密翁書夫子文經』一冊 有學事言等諸目 其擬之跋云…
132	1784.1.19 /5-123	歷代史纂左編	夜閱『西湖佳話』(十六卷 編五冊) 稱古吳墨浪子搜輯
133	1784.3.10 /5-153	小學	見唐荊川『歷代史纂左編』共百卷…
134	1784.3.12 /5-154	吳梅村詩集	還朱子『小學』三四于道友 是書集成本也 冊終有宣德四年秋通政大夫集賢殿副提學知製教經筵侍講官鄭麟趾跋
135	1784.3.23 /5-166	吳初新志	閱『吳梅村詩集』二十卷 今編冊 太倉吳偉業著 有序一通…
136	1784.兪3.2 /5-179	李杜詩選	出『虞初新志』共爲賞訂 是謝恩使所得新本也 凡二十卷 其新序云…
137	1784.5.15 /5-227	古文韻律	見金陵本『李杜詩選』(四冊) 有楊升庵批評 皆宋字 每卷識『文獻之章』下識『春坊內府之藏』
138	1784.5.29 /5-240	歷史年表	朝見許穆『古文韻律』(四卷編十一冊) 其自序云云…
139	1784.6.10 /5-247	鄭氏印叢	或見『歷史年表』百餘卷 節使新出之本 爲康熙所編定云
140	1784.6.13 /5-249	李匡師左右帖	見『鄭氏印叢』有林辱翁父子·李最之·李元靈·許穆·姜世晃…
141	1784.6.23 /5-259	奎章閣志/弘文館志	取見『李匡師左右帖』四冊 皆李匡師書法 分篆隸楷草行草 或大或小 識圓嵩道父諸石記 問左右之義曰左海之石軍也 續見左右帖 一皆李匡師所著詩詞也
142	1784.6.24 /5-262	鯖徂錄	見『奎章閣志』(一冊) 今年仲夏新編『弘文館志』(一冊) 亦今夏新印 並首有御製序文
143	1784.7.6 /5-276	三韓叢書	閱『鯖徂錄』(一冊) 有潘岳秋興賦序云…
144	1784.7.10 /5-280	皇極一元圖	閱『三韓叢書』(今止十餘冊 意其盡成) 有終則爲必傳之書 略考凡例…
145	1784.9.9 /5-332	學山堂印譜	閱『皇極一元圖』(二冊) 秘書省藏板 稱經世大法 有英宗五十年甲午 戶判徐命膺序…
146	1784.9.13 /5-337	思辨錄輯要	共閱『學山堂印譜』(二十冊) 明古吳張灝夷令鑑藏 凡二千餘方 下有牧參錢宗伯諸公叙
147	1784.9.24 /5-345	西廂記	見陸桴亭『思辨錄輯要』(六冊) 稱張大中丞 重訂正誼堂藏板 大中丞者 儀封張伯行也 有伯行康熙四十八年(己丑)仲冬序刻一道
148	1784.10.6 /5-355	枚卜錄	見李卓吾原評『西廂』(三冊) 下題莊生秋水篇 靖節閑情賦 當與並傳 具眼者 須不作劇本觀也 上有序一道 稱崇禎庚辰(仲秋之朔)醉香主人 書于快閣
149	1784.10.9 /5-357	刪補苑橘	夜閱『枚卜錄』(一冊) 萬曆戊戌以前文書不存 始以戊戌十月 原任大臣李山海等命招卜相 兵判李恒福落點 終以英宗戊寅八月 曾族祖文翼公…

「欽英」에 나타난 通園 俞晚柱의 도서해제에 대한 연구

150	1784.10.28 /5-381	憑山閣彙輯 留青新集	續閱『刪補苑橘』(二冊) 凡二十目
151	1784.10.28 /5-381	遁村野記	『留青采珍集』(十二冊) 武林陳簡侯枚輯 梓于金閨寶翰樓 有康熙壬午夏日 方象瑛序 蓋是集 採取清人四六駢對文字 而其可知者 尤侖陳惟崧王暉諸人耳
152	1784.11.5 /5-388	小華詩評	見『遁村野記』(十八冊) 孝宗顯宗卷 未知何人所輯 而雜取諸名公 集中章節啓說 而謄錄之 別無義例之可論議 本國野乘 終無善本 此書亦大不及聞 中有老峰閣公鼎重應旨 後筵說上下酬酢 都是姜獄也 仍讀鶴洲金公弘郁應旨疏本 請伸姜獄 令人凜凜起敬
153	1784.11.6 /5-389	詩評補遺	夜閱『小華詩評』一冊 本朝洪于海所錄也云…
154	1784.12.5 /5-409	貫華堂詩目	夜閱『詩評補遺』一冊 亦洪于海所錄也
155	1784.12.17 /5-418	資治通鑑	『貫華堂詩目』 絕奇詩目 二字書于上頭 而詩人姓名 亦上頭書 詩之名題 亦上頭書 更無層絕高低 如他本詩冊之例 殊覺奇甚 果是聖歎外書之法也
156	1784.12.23 /5-422	屯菴少宰雜識	夜檢『資治』終冊 讀永樂元年閣寶文大提學權近跋·永樂二十年殿(集賢)大提學下季良跋·宣德九年試集賢殿直提學金鑽跋 皆論鑄字始末 非跋元冊也 『資治』則正統元年八月印出云
157	1784.1.5 /5-431	增訂敬信錄	閱『屯菴少宰雜識』(四冊) 英宗戊寅開板
158	1784.1.11 /5-436	松雪學士書	繙閱『增訂敬信錄』(一冊) 係清人周鼎臣所輯 首有乾隆己丑尹繼善序一道
159	1785.1.28 /5-442	陶朱公致富奇書	閱『松雪學士書』 末題先賢三銘 後學吳興趙孟頫 敬為耐馬國王書 請王置之座右 蓋是書 贈麗朝宣王之印本也
160	1785.2.4 /5-446	龍門綱鑑會纂	見『陶朱公致富奇書』 稱陳眉公增輯(一匣) 有康熙戊午春白鍾山漫識一道
161	1785.2.5 /5-447	樂府詩集	偶閱『龍門綱鑑會纂』 稱瓊山原本 內附讀鑑要箋 梓于古吳 有康熙乙巳歲次仲夏日句曲蔣先庚敘一道 題於玉芝園敍
162	1785.2.16 /5-453	薰陶坊鑄洞志	閱郭茂倩『樂府詩集』(原本百卷) 目分郊廟歌辭·燕射歌辭·鼓吹曲辭·橫吹曲辭·相和歌辭·清商曲辭·舞曲歌辭·琴曲歌辭·雜曲歌辭·近代曲辭·雜歌謠辭·新謠歌辭·新樂府辭 凡十二部 唐祀天樂章 有肅和福和壽和諸名 拜洛樂章 有昭和威和顯和敬和通和之名 太廟樂章 有延和寧和恭和之名 郊祀樂章 梁有慶順慶熙之名 周有昭順禮順福順之名
163	1785.5.7 /5-493	雙錄/彙言漫錄 /庚三先後錄抄	外舍見『薰陶坊鑄洞志』一冊 有翼社功臣領議政朴承宗序
164	1785.5.18 /5-501	通鑑論畧, 宋鑑論畧	還閱『雙錄』(一冊)『彙言漫錄』『庚三先後錄抄』皆不出著書人名氏

165	1785.6.3 /5-514	陸宣公奏議	書借『通鑑論畧』(四冊)『宋鑑論畧』(二冊) 並識閱公聖徽石記五類書
166	1785.6.3 /5-514	江湖長翁集	『陸宣公奏議』有朱刻雍正手書序文一道 下識日乾夕惕小齋 又有雍正巨璽 文不可別 是川陝總督牟養堯所刊 有養堯雍正元年 恭記一篇
167	1785.6.4 /5-514	東林列傳	『江湖長翁集』(十冊 分卷四十) 宋淮南陳造也 卷有錢宗伯鈴識石章二顆 曰錢謙益印陰刻 牧翁陽刻
168	1785.6.8 /5-518	墨庄記	閱『東林列傳』 江陰陳鼎編輯 康熙辛卯新鐫
169	1785.6.8 /5-518	四漫識	上簡出見『墨庄記』(一冊) 以內賜類書 首四家所分貯 合萬餘卷
170	1785.6.10 /5-519	冊封慶文武試榜刻	還閱『四漫識』(一冊) 識漢晚居石記 合任文僖公『水村閑筆』云云 崔奎瑞『少陵漫錄』云云 無名氏『無愁漫錄』 趙氏(失名)『白野記聞』云云 觀其所記 似是權訛門人也
171	1785.6.10 /5-519	瑣話	朝見『冊封慶文武試榜刻』(一冊) 有御製序文 原任直閣徐龍輔書 文科十八人 武科二千六百餘人 並入直赴而計
172	1785.6.20 /5-527	禦眠榻	閱『瑣話』蘭本(一冊) 『侯鯖瑣語』·『思齋錄』·『詩話笑叢』 合稱『清江笑圃』 其下 梧陰『雜說』·鄭弘溟『崎翁漫筆』·休菴『續玉露』(云云並見別部)
173	1785.8.3 /6-18	新註無寃錄	弘治間 宋世琳 頗以文墨稱 因病 退居于鄉 著『禦眠榻』一卷 皆村野戲談 嘉靖辛亥 其季世珩 提調芸閣 私印若干件 蓋欲以此 圖不朽也 今俗 每稱謠作欺 誑人籠絡孟浪者 爲禦眠睡 禦眠睡三字 余亦認爲方言 而不知其源 今以宋氏小說 推之是其俗說之源 而睡乃榻字之訛也
174	1785.9.24 /6-40	大典通編	見『無寃錄』(一冊) 滇京舊板也 係胡元至大間東甌王興所輯 正統三年 集賢殿直提學柳宜孫奉教書新註
175	1785.9.26 /6-41	道書全集	閱『大典通編』(五冊) 內賜工曹 卽宣政殿合輯 自明年正月 行用者也 首有李福源序文一道
176	1785.10.8 /6-48	經世宏辭	取閱『道書全集』 稱閩人楊良弼校刊
177	1785.10.29 /6-59	弇州山人四部	委訪凍見『經世宏辭』(二匣) 王元馭續編 皆皇朝館課也 中有申時行擬製『王通傳』
178	1785.12.14 /6-95	澤堂言行錄	閱『弇州山人四部稿選』(八冊) 越郡沈一貫選 有兵部左侍郎汪道昆序(云云別部)
179	1786.1.16 /6-129	錦香亭	還閱『澤堂言行錄』(云云別部) 外齋所撰也
180	1786.1.24 /6-136	崔陟傳奇	閱『錦香亭』(三冊) 稱古吳素菴主人編云
181	1786.2.20 /6-161	神訣	夜閱『崔陟傳奇』(一冊) 天啓辛酉帶方寓公所撰也云云
182	1786.2.20 /6-161	珠索	畧閱其『神訣』(一冊) 皆論訂脉度之書也
183	1786.2.24 /6-164	大典通編	閱『珠索』(一冊) 集錄唐宋人絕句之詩 其作者姓名 多不顯詩 則幾皆清警 可誦也

「欽英」에 나타난 通園 俞晚柱의 도서해제에 대한 연구

184	1786.3.4 /6-179	厚齋笥記	取攷內賜『大典通編』史典老人職條 是書 前年始頒行國中 李福源序之 禮典增璽寶一條 「宣脫端輔」「奎章之寶」「同文之寶」「濬哲之寶」並今上朝新刻也
185	1786.3.14 /6-180	五家律詩	試閱『厚齋笥記』(十冊) 止是名物度數而已
186	1786.4.26 /6-214	籌邊碩畫	濼示『五家律詩』(一冊) 五家 估畢·季昱·挹翠·仲說·伊齋·寡梅·簡易 立之四溪季肯也 律絕 凡三百四十三首 貽賴古齋三字 下識小石記篆曰 圓嶺
187	1786.4.28 /6-215	周禮注疏刪翼	更閱『籌邊碩畫』(見別部) 每卷之首識天啓二年仲夏 征東軍 門陶發學收覽 修刻朱印
188	1786.4.28 /6-215	低易	見『周禮注疏刪翼』(分卷三十編 十二冊) 水西新粧 明人葉悖恕定 王之)長輯
189	1786.4.28 /6-215	數理精蘊	閱『低易』(書名)四冊 是廣州隱士所記 直去孔子象繫而爲之說 但未詳其說云 何今傳於廣州吏云
190	1786.4.28 /6-215	芴亭遺稿	議『數理精蘊』一書名爲康熙之書 而實西洋利瑪竇之書也 籌數微妙盡于此矣
191	1786.5.5 /6-221	太平備覽	略閱『芴亭遺稿』(一冊) 南人李惠胄所著也
192	1786.5.7 /6-222	墨幻	閱『太平備覽』(一冊) 是丙申倫音疏啓也
193	1786.5.19 /6-228	古文采芳集	送來『墨幻』(二冊) 是餘 曾所閱 尹氏鄭氏沈氏之書李氏之書也
194	1786.5.30 /6-234	士大夫可居處	見『古文采芳集』(八冊) 有康熙五十七年(某月十一日)江寧熊詹序
195	1786.7.8 /6-256	遜齋文集	還示『士大夫可居處』(一冊) 題以青華山人著 書稱一部奇文
196	1786.윤7.3 /6-280	敬齋箴	閱『遜齋朴氏集』(五冊) 李尙書粹銘墓碣 公平陽人 大提學文肅公錫命之後云…(餘見別部) 有洪樂命壬寅序云…
197	1786.윤7.8 /6-284	甘藷經	兼示刻本『敬齋箴』二十紙 是朱子書法 而皆擘窠大字 字近二百 濼之書 稱此板 曾曾浮海泊于耽羅 有人聞而印來云 審其刻 直是東法耳 鈍拙之甚 而書亦因而失真 然間或結構之遵整者 猶可想像典型也
198	1786.윤7.21 /6-297	龍湖雅戲帖 /輪彥故人錄 /雅戲帖	副示李氏『甘藷經』(云云別部) 觀其文 是譜而非經也 經與譜 異體 如銘與頌之不可渾也
199	1786.윤7.24 /6-302	黃老江漢之書	還示新印『龍湖雅戲帖』(一冊) 及『輪彥故人錄』(一冊)『雅戲帖』 附以江閣分韻 首有首陽吳遂元序 次畫滿地江湖 識吳遂郁章詩 合四十六篇 皆大律也 未有趙裕壽跋 分韻帖 歲乙酉初夏雨中 趙裕壽輩 小集會閣 分韻賦詩 凡二十七篇 下又有吳遂元跋 『輪彥錄』 稱陳眉公曰 讀未見書 如得良友 見已讀書 如逢故人 書錄之題 蓋取諸此云 計錄中所載書 合五百八十餘種 當爲一萬餘卷

200	1786.8.24 /6-335	譜冊	閱「黃老江漢之書」三匣至 自蓮州(別部) 其文章古則古矣 終患不真的矣
201	1786.9.26 /6-373	國朝文科榜目	續閱「譜冊」 首刻崇禎紀元之七十七年甲申夷則上澣先高王考序 舊譜文 下刻歲乙酉日南至市南文忠公以禮曹正郎跋舊譜文 其附錄所刻墓文 凡四十五篇 甲申修譜時 稱取趙松窓從叔所輯「氏族原流」以證其誤
202	1786.10.14 /6-397	漢魏叢書	閱「國朝文科榜目」 姓譜起于安東金氏 終於無貫莊甘葉邕四氏 並同姓異貫 而計之 凡為六百二十餘氏
203	1786.10.15 /6-398	醒心錄	見「漢魏叢書」(共三十卷) 分經籍·史籍·子籍·集籍 閱其敘及目例 與蘭本異 訂是書殊厭觀
204	1786.10.15 /6-398	昌寧成氏家乘	見久有「醒心錄」(一冊) 學者金鍾厚所輯也 自孔子 至尤翁 集其氣像品行旋
205	1786.10.16 /6-400	家狀	見「昌寧成氏家乘」(三冊) 每編第一行從頭 直書官啣行贈府君遺傳而下乃列錄狀誌或年譜 不復書家乘卷之第幾 是例 大不村野 紳有士大夫文獻本色 又入錄祭文 而輒從頭 直書作者本貫姓名曰云云 不復別行書題 亦脫套可喜也
206	1786.11.1 /6-407	止亭亂稿	夜閱族祖參判公「家狀」(一冊) 如觀邸本 亦無當於繁冗
207	1786.11.2 /6-409	汗蒐	(看詳「止亭亂稿」以參較移寫本也) 聞久堂尚書 家有止亭刻集 傳是宋文端公手書 刻于家 字樣刻法 極妙 共四而止有一冊云 文端送別南東岡彥經詩 有圖章 刻以止亭外孫 則是文端 非徒不恥從 又表章之也 其刻文 亦古今石記文字中 所未曾有 蓋絕奇矣
208	1786.11.16 /6-417	朝鮮人大行列記	聞東山井洞申氏家 舊有野史巨帙 名曰「汗蒐」 凡二百卷 岡羅東乘 無不入載 陶相二說 亦入其中 第其子孫 不能典守 今多遺失云
209	1786.11.23 /6-422	徽綱	見凜書送示「朝鮮人大行列記」(一冊) 稱寶曆十三年新板 京都菊花堂刊 是日本國書籍也 粧以青帙 狀類佛書 卷首有若序者五板 皆雜以日本字 不可聯解
210	1786.11.24 /6-423	尹拯年譜	還總檢「徽綱」 卷終有永樂元年十一月閣大提學(寶文)權近跋·永樂二十年(十月)殿大提學(集賢)卞季良跋·宣德九年(九月)試殿直提學金鑣跋 皆敘鑄字印書之始矣 「綱目」則正統三年十一月印出云
211	1786.12.25 /6-444	後自警編	水西見新刊「尹拯年譜」 亦尹光紹所輯也 凡三冊
212	1787.1.5 /6-454	御筆孟子諺解	見示「後自警編」(六冊) 為夢窩金忠獻公所輯 卷首有肅祖己亥疎齋李忠文公序 訂是應有之書也 但編輯 未必無可 譏微吳百千文字云
213	1787.1.15 /6-465	說郭	見「御筆孟子諺解」 聞是元宗御書入刻者云

「欽英」에 나타난 通園 俞晚柱의 도서해제에 대한 연구

214	1787.1.15 /6-465	知不足齋叢書	見叔宰值 繙閱『陶氏說郛』(十六匣) 要直七千餘文云 卷首有順治四年浙江巡按御史王應昌序(句) 摠目 凡二卷 元(句)爲百二十卷 續爲四十六卷 續之者明陶斑也 皆集錄明書
215	1787.2.2 /6-473	新刻京臺公 餘勝覽國色天香	聞『知不足齋叢書』在架至副使柳氏家 清人新書也 言刻本甚細 想如虞初異之類 以千文第匣 次推之 又不啻幾萬卷…
216	1787.2.11 /6-479	山海經	間閱『天香』 稱吳敬所編輯 新鏤(一作『新刻』京坵公餘勝覽)分卷一十
217	1787.2.13 /6-483	葵窓集	始閱凍寄『山海經』二冊 稱萬歷乙酉夏月較刻官板 郭璞撰 序謂…
218	1787.2.25 /6-488	漢魏叢書	閱海原忠孝公健『葵窓集』 首載肅祖御製詩一章(云云別部)
219	1787.3.23 /6-507	孔叢子	始閱『漢魏叢書』 總計元卷 爲二百五十 武林程伯仁刻
220	1787.4.21 /6-530	春波日月錄	夕閱『孔叢子』 蓋專記子思言行 附以『小爾雅』
221	1787.5.7 /6-538	洞浩皇明世法錄	見『春波日月錄』(十四) 略記長陵朝事 而標題『仁祖大王實錄』 殊不倫也

